

예루살렘의 멸망 BC 588년 근거

2장 : 이스라엘 —그 곳에서의 833년	16
I. 서론	16
II.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최후의 날	16
A. 726 B.C.-- 호세아의 음모	16
B. 725 B.C.-723 B.C.-- 살만에셀에 의해 포위된 사마리아	18
C. 721 B.C.--사르곤에 의한 사마리아인의 강제이주	19
D. 723 B.C.-- 연대비교 및 천문학에 의해 바로잡힌 사마리아의 멸망	21
III.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최후의 날	21
A. 672-630 B.C.-- 아슈르바니팔의 통치	22
B. 627-610 B.C.-- 아시리아의 붕괴	23
IV.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최후의 날	24
A. 729 B.C.-699 B.C.-- 히스기야의 치세	24
B. 699 B.C.-642 B.C.-- 므낫세와 아몬의 치세	26
C. 642 B.C.-610 B.C.-- 요시야의 통치	26
D. 610 B.C.-- 여호아하스의 3개월 통치	28
E. 610 B.C.-599 B.C.-- 여호야김의 통치	28
F. 599 B.C.-598 B.C.-- 여호야김의 3개월 통치	30
G. 598 B.C.-588 B.C.-- 시드기야의 통치	32
H. 588 B.C.-- 유다의 총독, 그다랴	34
V. 천문학적으로 정해진 예루살렘의 멸망	35
A. 안식년	35
B. 안식일	36
C. 제사장의 주기	37
D. 열일곱 번의 희년	38
E. 에스겔의 430년	38
F. 솔로몬 4년	38
G. 출애굽기의 해	38
H. 두 번째 법	39
개요	39
연대표 정리	40
2장 주석	41

2장 - 이스라엘 — 그 곳에서의 833년

I. 서론

본 장의 목적은 출애굽기, 분단된 왕국, 바빌론 유수, 귀환 및 복원에 대한 역사적, 연대적 배경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두 개의 히브리 왕국, 즉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왕국의 최후 생존일에 관련된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가장 잘 수행될 수 있다. 이 장은 살만에셀 5세에 의한 아시리아군의 사마리아 공격으로 시작하여 성스러운 도시 예루살렘을 결국 황폐하게 만든, 느부갓네살 2세에 의한 바빌로니아의 예루살렘 포위로 마무리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또한 아시리아 제국의 적들이 그것을 점령하기 위해 어떻게 꾸준히 강해졌는지에 대해 독자에게 알려줄 것이다. 특별섹션에서는 나보폴라사르 하의 바빌론과 그의 동맹국인 메디아가 어떻게 니느웨를 정복했는지, 마지막으로 아시리아의 마지막 거점인 하란을 정복했는지에 대한 것을 알려줄 것이다.

고대근동역사의 이 기간에는 아시리아, 이집트, 바빌론 이 세나라가 세계의 패권을 위해 어떻게 서로 싸워왔는지와 관련이 있다. 이 시기에 대한 많은 정보는 성경의 페이지에 여러 방법으로 주어진다. 분단국인 이스라엘과 유다가 십자포화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이전의 책은 그 시기의 역사상 연대기를 상세히 기술한 분단왕국에 대해 쓰여졌다.¹⁾ 이 책에서는 에드윈 티엘의 연구가 어떤 부분에서, 특히 히스기야 시대에서 약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II.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최후의 날

성서의 열왕기 상, 하(열왕기상 12:1-열왕기하 18:12)와 역대기하 (역대기하 10:1-31:1)에서는 북쪽왕국인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대기를 제공한다. 또한 히브리 예언서들 중에는 역사적이고 연대기적인 언급들이 산재해 있다.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왕국은 기원전 945년(영국제국이 분단되던 분립의 해)부터 기원전 723년(사마리아가 멸망한 해)까지 222년동안 지속되었다.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 Omride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사건들로 관심을 돌릴 때가 되었다.

아시리아의 왕 티글라트필레세르가 죽었을 때, 살만에셀 5세가 아시리아의 왕위를 계승했다(기원전 727년). 그 때에 이스라엘의 왕 호세아(기원전 732년.- 기원전 723년)가 아시리아가 그에게 대적할 때 살만에셀의 종이 되어 그에게 공물을 바쳤다(열왕기하 17:3). 기원전 727년,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여섯 번째인 호세아는 살만에셀에게 바치는 공물을 보류하고 이집트와의 동맹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²⁾ 이 동맹은 시리아-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집트의 세력이 커진 결과였다.

A. 726 B.C.-- 호세아의 음모

열왕기하 17:4의 히브리 문자는 호세아의 음모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가 이집트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시리아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여 아시리아의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기원전 732년에 호세아를 사마리아의 왕위에 앉힌 것은 티글라트필레세르였다. 티글라트필레세르의 연대기 원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Bit-Humria [오므리의 집 즉, 이스라엘]의 땅... 내가 아시리아로 노략해간 그 모든 백성과 그들의 물건과 함께... 그들이 퇴위시킨 그들의 왕 파카하 그리고 나는 Ausi(호세아)를 그들의 왕으로 세웠다.

도해 I: 연대표 761-521 B.C.

	SYRIA	ISRAEL	JUDAH	ASSYRIA	EGYPT	SYNCHRONISMS
771			SON OF AMAZIAH	ASHUR-DAN III SON OF ADAD-NIRARI III		
761	BEN-HADAD III	ZECHARIAH SON OF JEROBAM SHALLUM SON OF JEREMIAH MENAHEM SON OF GADI				JUBILEE 13, SABBATH 94 TODDAM - ABUR DAN II ECLIPSE JONAH, JUNE 15, 763 B.C.
751	KINGS OF BABYLON	PECAHIAH SON OF NDENEM	JOTHAM SON OF UZZAH	ASHUR-NIRARI V SON OF ADAD-NIRARI III	PELOPAST	EARTHQUAKE AND PLAGUE, UZZAH SABBATH 95 PUL, MENEHEM, UZZAH, TRIBUTE ISAIAH'S VISION OF THE LORD - 777
741	NABONASSAR	PEKAH SON OF ROMALIAH	AHAZ SON OF JOTHAM	TIGLATH-PILESER III SON OF ADAD-NIRARI III	OSORKON II	SAH'S PROPHECY OF VIRGIN + 730 AHAZ - TIGLATH-PILESER NAPHTALI, PHOENIX, UK, 15, 29 PEKAH, REZON, TIGLATH-PILESER
731	NADUS CHINZER PORUS/TIGLATH-PILESER SHALMANESER	HOSHIA SON OF ELAH END KINGS OF ISRAEL	HEZEKIAH SON OF AHAZ	SHALMANESER V SON OF TIGLATH-PILESER	BOCCHORIS	2-3-3273, JEHOIAH'S HOSHIA, SHALMANESER, HEZEKIAH, SO KOS-EA, SHALMANESER SABBATH 100 - 300 390 TO GERIZIM
721	MERODOCH-BALADAN SON OF IAKNU SARGON			SARGON II SON OF HATWAKE DYNASTY OF IABGAL	SABACOS ETHIOPIAN	JUBILEE 14, SABBATH 101 FIRST ASSAULT OF SENNACHERIB SARGON, ISAH SARGON, SAH
711	BEL-IBNI ASHUR-NADIN-SHUMI SON OF SENNACHERIB NEKAL-ISHHEZIB MUSHEZIB-MARDUK			SENNACHERIB SON OF SARGON	SABTECO SON OF SABACOS	SECOND ASSAULT OF SENNACHERIB 418 YEARS AFTER TIGLATH-PILESER
701	VACANCY	KINGS OF MEDO-PERSIA		ESAR-HADDON SON OF SENNACHERIB	TAHAROO NEPHEW OF SABACOS SON IN LAW OF SABACOS	520 YRS. ASSYRIA CONTROLLED UPPER ASIA
681	ESAR-HADDON SON OF SENNACHERIB		MANASSEH SON OF HEZEKIAH	ASHUR-HADDON SON OF SENNACHERIB	TANDANAME SON OF SABACOS	YR. 1 ESAR-HADDON, MAY 28, 680 TRIBES RETURN YR. 3 ESAR-HADDON, AUG. 4, 678 YR. 8 ESAR-HADDON, JAN. 9, 672 ESAR-HADDON CAPTURED MANASSEH ASHURBANIPAL RELEASED MANASSEH
671	SHAMASH-SHUMA-LUKIN SON OF ESAR-HADDON			ASHURBANIPAL SON OF ESAR-HADDON		ELAM 1895 YEARS OLD
661		DEIOCES			PSAMMETICHUS DESCENDANT OF TERMOCHTE	
651	KINELANADAN O-IL-DEAN-NOSE-IMAN		AMON SON OF MANASSEH			
641	VACANCY	PHRAORTES SON OF DEIOCES	JOSIAH SON OF AMON	ASSUR-ETIL-ILANI		13-24-3378, JEHOIAH'S SABBATH 114
631	NABOPOLASSAR		JEHOIAKIM SON OF JOSIAH	SIN-SHAR-ISHKUN	NECO SON OF PSAMMETICHUS	NINEVEH FELL HARAN FELL 24, -21, +43, +45, +48 -1200
621		ALYATTES OF THE SYRIANS	JEHOIAKIM SON OF JOSIAH ZEDEKIAH SON OF JOSIAH	ASHUR-UBALLIT II	PSAMMIS SON OF NECHO	
611	NEBUCHADNEZZAR SON OF NABOPOLASSAR MARRIED AMYTHIA DAUGHTER OF MANDANE, MOTHER OF CYRUS		DEPORTATION OF ZEDEKIAH, DANIEL, JEHOIAKIM MORDECAI, ESTHER, JEHOIAKIN		HOPHRAH-APRIES SON OF PSAMMIS	430, 833, +40 9-7-3413, JEHOIARR 3-29-3416 8-29-3419 +408 DANIEL 4 +2500 4-15-3433 +37
601	BEL-SHARRAZAR SON OF NEBUCHADNEZZAR ASTYAGES	CYAXERES SON OF PHRAORTES	EGYPT CAPTURED NEBUCHADNEZZAR MAD AHASUERUS FEAST NEBUCHADNEZZAR RETURNS NEBUCHADNEZZAR CAPTURES EGYPT ESTHER-QUEEN FIRST PURIM - JEHOIAKIM FREED	70 YEARS OF JEREMIAH'S EXILE SECOND DEPORTATION OF ISRAEL THIRD DEPORTATION OF ISRAEL DANIEL CH. 2, 3, 4 DANIEL CH. 7 DANIEL CH. 8 DANIEL CH. 9, 10, 11		
591		ASTYAGES SON OF CYAXERES ALIAS AHASUERUS ALIAS DARIUS THE GREAT GRANDFATHER OF CYRUS			AMASIS RELATIVE OF APRIES USURPER	DANIEL 9 +48, +480, +40 7-1-3452, JEDAAH
581	EVIL-MERODACH SON OF NEBUCHADNEZZAR NEBUCHADNEZZAR BRO-IN-LAW OF EVIL-MERODACH KING OF BABYLON		CYRUS EDICT ALTAR BUILT JERUSALEM RETURNS			OLYMPIAD 83, YEAR 3 DANIEL 4 +360, +2520
571		CYRUS SON OF CAMBYSES ALIAS DARIUS			PSAMMETICHUS SON OF AMASIS CAMBYSES	
561		CAMBYSES SON OF CYRUS				
551	NABUNADID SON OF NABU-BALAT-SU-IBQ A SYRIAN					
541	CYRUS					
531	CAMBYSES					
521	SWEDEN'S MAGI	SWEDEN'S MAGI	CONSTRUCTION DELAYED CONSTRUCTION RESUMED, 70 YRS. OF JEREMIAH'S EXILE			

금 열 달란트, 은 열 달란트, 내가 그들에게서 받은 공물로서 아시리아로 가져갔다.”³⁾ 아시리아에 대한 호세아의 반란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아시리아에 대항해 효과적인 원조를 제공할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시리아인들은 3년간의 포위(기원전 725년, 기원전 724년, 기원전 723년)를 견뎌낸 사마리아를 제외한 이스라엘 땅을 점령했다.

B. 725 B.C.-723 B.C.-- 살만에셀에 의해 포위된 사마리아

히브리 성경은 열왕기하에서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를 포위한 것에 대해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첫 번째 언급은 열왕기하 17:5-6으로 사마리아 몰락이 호세아 9년으로 적혀있다.

1. 앗수르 왕이 올라와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삼 년간 에워쌌더라
2. 호세아 제구 년에 앗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앗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두 번째 언급은 열왕기하 18:9-11으로 히스기야에게 사마리아가 함락된 것을 상호 참조하고 고대 유대의 군주 통치 6년이다.

3. 히스기야 왕 제사 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칠 년에 앗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삼 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육 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구 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앗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앗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4.

히스기야 4년과 호세아 7년은 모두 기원전 725년이다. 사마리아가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은 지 삼 년이 되었으므로 히스기야 6년, 호세아 9년 모두 기원전 723년이었다. 따라서 사마리아의 몰락은 기원전 723년에 일어났다.

아시리아의 에포님 명부는 놀라운 방법으로 성서 기록의 온전함을 유지하고 있다. The 아시리아의 리무프는 살만에셀 5세의 즉위해(기원전 727년)부터 기원전 723년의 사마리아의 멸망까지 인용된다.

5. 727 다마스쿠스 살만에셀에 대항하여 구자나의 총독(Bel-haran-bel-usur)이 왕위에 올랐다
6. 726 이 땅의 아메디 총독(Marduk-bel-usur)
7. 725 [사마리아에] 대항한 니느웨 총독(Mahde)
8. 724 [사마리아에] 대항한 Kakzi의 총독(Assur-ishmeani)
9. 723 [사마리아에] 대항한 아시리아의 살만에셀 왕⁴⁾

알 수 있듯, 이 에포님 연대기는 살만에셀 5세의 즉위해(기원전 727년)에 있었던 '다마스쿠스에 대항한' 군사작전을 기록하고 있다. 이 때 호세아가 그의 종이되어 살만에셀에게 조공을 바쳤으나 그와 동시에 이집트 왕 소와 협상하고 있었다. 아시리아의 왕이 그 땅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기원전 726년에는 어떠한 군사작전도 없었다. 기원전 725년, 살만에셀은 일부 도시나, 이름을 잃어버린 왕국에 대항하는 군사작전을 벌였다. 같은 군사작전이 기원전 724년과 기원전 723년동안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살만에셀이 대항한 장소의 이름은 무엇일까? 성서문이나 바빌로니아 연대기 모두 이것에 대한 답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아시리아 명부에서는 '대항하여'라는 단어가 세 번 쓰여지고, 성경에서는 3년간의 사마리아 포위가 나오기 때문에 아시리아 명부 본문에 '사마리아'라는 단어가 추가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니엘 데이비드 러켄빌⁵⁾, A.T. 올름스테드⁶⁾, 하임 타드몰⁷⁾와 같은 학자들은 아시리아 에포님 명부에 대한 '사마리아' (단어의) 복원을 지지한다. 히브리어로 쓰인 글뿐 아니라 바빌로니아 연대기도 '사마리아' 복원을 지지한다. 살만에셀 5세의 왕좌, 그가 사마리아를 포위한 것과 그의 죽음에 대한 언급은 사르곤의 즉위와 함께 바빌론 연대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연대기 1, i.27-31)--

10. 27 테벳 월 스물 다섯째 날에 살만에셀 5세가
11. 28 왕위에 오르다
12. 27 아시리아<그리고 아카드>에서, 그는 사마리아[Sa-ma ba-ra-'-in]를 파괴했다.
13. 29 다섯째 해, 살만에셀 5세는 테벳 월에 사망했다.
14. 30 살만에셀 5세는 5년간 아카드와 아시리아를 다스렸다.
15. 31 테벳 월 열 둘째날에 사르곤 2세가 아시리아 왕위에 올랐다⁸⁾

이것이 사마리아에 대한 언급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프란츠 델리취는 원래 아카드의 단어가 '사마리아'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최근 하임 타드몰은 그것이 사마리아라는 결론에 도달했다.⁹⁾ 보통 히브리어식 철자인 Shomron으로 쓰여있는 사마리아가 바빌로니아 연대기의 그것과 유사하게 Shamrayin으로 적혀있는 것은 에스라 4:10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수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성경과 바빌로니아 연대기는 모두 아시리아의 에포님 명부에서 '사마리아'로 읽는 것을 지지한다.

C. 721 B.C.-- 사르곤에 의한 사마리아인의 강제이주

기원전 723년 사마리아가 멸망한 후 살만에셀은 테벳 월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히브리식 테벳 월은 그레고리력에서 12-1월에 해당한다) 사르곤 2세(722 B.C.-705 B.C.)가 왕위에 올랐다(그레고리력상 기원전 722년 1월 10일). 그는 의심의 여지 없이 투르탄(타르탄) 혹은 '최고사령관'으로서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를 포위하는 것을 도왔다. 살만에셀이 죽은 뒤 남은 것은 백성들의 추방과 자신의 기록에 따라 사르곤 스스로 이룬 것이다.

고대 히브리인들의 추방은 사르곤의 통치 첫 해(기원전 722년)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의 연대기 본문은 추방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16. ... [통치 초창기인 집권 1년차] ... Samerinai (사마리아의 사람들) ... [사마시의] 그들은 나를 승리로 이끌었다 ... [그곳에 살았던 27,290명의 사람들] 나는 왕실의 장비를 위해 50개의 병거를 가지고 갔다. [그것들 중에] 선택했다. ...나는 [내가 재건한 성읍을] 그 전보다 더 크게 만들었다. 그 땅의 사람들 [내 손으로 정복했고, 나는 그곳에 정착했다. 내가 총독으로 임명한 나의 관료들] 아시리아인들에게 부과한 것과 같이 공물과 세금을 그들에게 부과했다¹⁰⁾

후에, 그의 아시리아 기록인 '코르사바드 문헌'에서 사르곤은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함락했다고 주장한다. 다음의 인용에서 사르곤은 사마리아를 포위하는 것뿐 아니라 백성들의 추방 또한 제안하고 있다. 또한 그는 호세아와 동맹을 맺었던 이집트의 투르탄(최고사령관) 시브에Sib'e(사바코스)를 타도한 것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17. 즉위한 해부터 집권 15년까지,...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포로로 잡았는데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 27290명을 데리고 나왔다. 그 가운데 내가 모은 병거 50대, 나머지 병거를 그들의(추방된 주민들의) 몫으로 하게 하고, 나의 관료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전 임금에게 바쳤던 공물을 부과했다. 라피후(라파)에서 나와 싸우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 나왔던 가자의 왕 한

노와 이집트의 투르탄 시브에를 나는 물리쳤다. 시브에는 내 무기가 땡그렁대는 소리에 겁을 먹고는 도망쳐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가자의 왕 한노는 내 손으로 잡았다. 11)

사르곤이 시브에를 타파한 것은 그의 연대기에 명시되어있듯 아시리아의 지배 2년 째 되는 해(기원전 720년)에 발생했다. 사르곤은 'Bull Inscription'에서 사마리아를 타도했다고 주장한다."... 사마리아와 모든 Bit-Humria오므리의 집을 타도한 사람"¹²⁾ 그리고 **살론 14세라는 글귀에** 사마리아를 약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는 사미리나samirina(사마리아)의 도시 Shihuhtu와 오므리의 집Bit-Humria(이스라엘) 전 국토를 약탈했다"¹³⁾ 사르곤이 왕위를 차지할 때에 사마리아의 함락에 대한 공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살만에셀 5세의 기록을 파괴한 것으로 보인다. 살만에셀의 아시리아 연대기 문헌 중 현존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보르시파에 있는 나부 신의 성전인 에지다성전에 작은 기념 실린더만이 남아있다.

사르곤이 아시리아의 왕위를 강탈한 자였다는 것은 그의 연대기 문헌인 '아슈르 선언문'에 언급되어 있다. 그 원문은 사르곤이 정권을 획득한 것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물론 모호하지만, 아슈르의 사제가 살만에셀에 대항하여 그를 지지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한다. 아슈르 도시의 복구된 선언문은 다음과 같다.

18. ... 내가 집권한지 2년 째 되는 해, 내가 왕좌에 앉아 왕관이 [씩워졌을] 때... 나의 도시 아슈르에 내가 가져온 [약탈품]. 그리고 그들이 [나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를 도우러 왔다. 고대 왕조의 봉건적 보호 (누리는) 도시 아슈르, 그 주인인 아슈르가 지구의 4분의 4로 극찬한 고귀한 대도시로 제국의 유대였다.... 옛날부터 봉건적인 채무도 봉헌도 모르던 사람들을 다스리던 경쟁자 없이, 우주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살만에셀]은 도시에 악을 [행하려] 손을 들고(문자 그대로 가져오고) 그곳의 사람들에게 봉건적인 채무와 봉헌을 심하게 [부과하고], [그리고] (그들을) 그에게 동조한 사람들로 간주하고 신들의 영주가 분노하여 그의 지배(왕조)를 타도했다. 나, 사르곤 [그가 지명한 왕으로서] 그가 높이 올린 나의 머리, 그가 나에게 맡긴 왕권과 왕좌로, 나의 세력은 굳어질 것이고, 나의 통치는 안전할 것이고 내가 회복한 (채무로부터) 그것의(아슈르의) 자유를¹⁴⁾

보아하니, 사르곤은 기원전 723년에 사마리아가 멸망한 후 아시리아의 왕이 되었다. 그는 아마 살만에셀의 투르탄으로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포획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살만에셀에게 공로를 준 성경의 기록과는 모순되게 사르곤의 기록에는 그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추방을 수행했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다.

사마리아가 멸망한 후 도시오 시골은 아시리아 주지사 산하의 아시리아의 지방으로 편입되었다. 사르곤의 비문은 독자들에게 다마스쿠스와 사마리아를 포함하여 하맛, 가자 그리고 다른 지방에서 일어난 봉기에 대해 알려주지만, 아시리아인들은 강경하게 통제했고 반란 사태는 빠르게 진압되었다. 그 후 몇 년 동안 사마리아인들은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아시리아의 정책에 의해 다시 이주했다. 히브리 성경은 사마리아로 이주된 사람들을 언급한다. "앗수르 왕이 바빌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열왕기하 17:24 이는 사르곤이 다음과 같은 글을 쓴 것에 동의하는 것이다.

19. 탈무드, 이바디디, 마르시마누, 하이아파, 원방의 아랍인들 족속은 사막에 살며, 높은 관리도 낮은 관리도(총독도 경정도)모르고, 어떤 왕에게도 공물을 바치지 않으니, 나의 주인 아슈르의 무기로 그들의 목숨을 빼앗고 남은 자들은 내가 추방하여 사마리아에 정착시켰다.¹⁵⁾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옮겨온 결과, 이 이주민들은 '그 땅 신의 법'을 배우고자 했다. (열왕기하 17:27). 아시리아인들은 사제가 야훼신앙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허락했다(열왕기하 17:34-41).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은 그들을 무시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말했고, 그 자신을 사마리아인 여성에 대한 메시아와 동일시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고잔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 그리고 메디아의 여러 고을들로 추방되었다(열왕기하 17:6, 18:11). 그들은 기원전 722년에 추방되었고, '아슈르 왕 에살하돈의 시대'까지 메소포타미아와 메디아 상부에 남아있었다. (기원전681년 - 기원전669년)

20.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성전을 건축한다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21.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앗수르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22.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23.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24.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25.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dek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에스라 4:1-6

적어도 고대히브리인들 중 몇 명에게는 아시리아의 억류가 약 40년간은 지속되었다(기원전722년+ 40년 = 기원전 682년). 하지만 요세푸스(유다고대사XI.viii.6-7)에 따르면 사마리아의 신전은 알렉산더 대왕 시절까지 재건되지 않았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언제나 성전의 적절한 위치(게리짐 산인지 모리야 산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성전의 위치를 '주께서 선택하신 곳으로'라 하였다. 신명기 12:11.

열왕기하 7장에서는 북방 왕국의 포로가 된 이유를 틀림없이 밝히고 있다. 그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세와 예언자들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은총을 깨버리는 행위를 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거듭 간청하여 그의 종복인 예언자를 보내시어 그들의 악을 꾸짖게 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유일한 해결책은 이 최후의, 가혹한 방편이었다. 국가는 감금과 징벌을 통해 복종의 의미를 배워야 한다.

D. 723 B.C.-- 연대비교 및 천문학에 의해 바로잡힌 사마리아의 멸망

기원전 723년 사마리아 멸망의 해는 아시리아 왕의 명부와 아시리아의 에포님 명부를 일치시킴으로써 확인된다.¹⁶⁾ 또한 그 날짜는 부르사갈레 이름의 유래인, 기원전 763년의 해 동안 시마누 월에 니스웨에서 일어났던 일식에 의해 천문학적으로 정해졌다.(기원전 763년 6월 15일).¹⁷⁾

Ⅲ. 아시리아의 수도, 니스웨 최후의 날

살만에셀 5세의 군사작전을 통해 달성된 사마리아의 멸망과 마침내 사르곤 2세에 의한 백성들의 추방을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기원전 613년에 있었던 니스웨의 멸망과 기원전 611년 하란의 멸망과 함께 아시리아 대제국의 쇠퇴와 궁극적인 멸망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 니스웨의 멸망과 함께 막을 내린 아시리아 제국은 이스라엘의 북방왕국을 110년이나 앞섰다(기원전723년 + 110년 = 기원전613년). 사마리아가 멸망하기 전, 나훔은 니스웨의 파멸을 예언했었다.

A. 672 B.C.-630 B.C.-- 아슈르바니팔의 통치

아슈르바니팔의 통치기간동안 아시리아 제국에 문제가 생겼다. 아슈르바니팔은 그의 아버지인 옛살하돈의 죽음으로 아시리아의 왕위를 계승했다. 그는 활동 초기에 이집트에서 멤피스와 테베를 잠깐 점령하며 군사작전을 수행했다.¹⁸⁾ 그의 연대기는 아시리아의 통치에 대해 주기적으로 반기를 든 시리아인, 페니키아인, 아랍인들에 대한 공격을 묘사하고 있다.¹⁹⁾ 잔인한 정복자로서 연대기에 묘사되고 있는 아슈르바니팔은 그의 형제인 샤마슈우킨이 이끄는 바빌론에서 반란을 진압해야 했다. (기원전 672년 - 기원전 649년).²⁰⁾ 바빌론의 칼데아인들은 독립을 위해 엘람인들과 다른 고원지대의 이란인들에 동참했다. 그 시도는 기원전 649년 2년간의 포위공격 끝에 바빌론이 아슈르바니팔에 의해 멸망하였을 때 실패했다.²¹⁾ 샤마슈우킨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아슈르바니팔은 엘람의 수도인 수사를 정복하고 약탈하기 위해 군대를 진군시켰다.²²⁾ 바빌론과 엘람으로부터 추방된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정착하거나 아슈르 바니팔의 효과적인 통제 아래의 서부 지방에 정착했다.

에스라 4는 수사와 엘람 사람들을 포함하여 여러 민족을 정착시킨 '위대하고 숭고한 오스납발'을 가리키는 아람어 문건을 인용한다.

26.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 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27.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새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28.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새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래 사람과 아바새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데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29.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 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에스라 4:7-10

아슈르바니팔이 에스라 4의 '오스납발'로, 그가 수사를 약탈함에 따라 엘람인이 사마리아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크다.

아마 아슈르바니팔이 고대 유대의 왕인 브닷세를 니스웨에서의 포로생활로부터 해방시켰을 것이다. (역대기하 33:13). 옛살하돈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일찍이 고대 유대의 통치자를 니스웨로 데리고 와서 왕궁을 재건하는 것을 도왔다.

30. 그리고 내가 히타이트 땅(시리아)의 왕들과 바다 건너 티레의 왕 Ba'lu, 유다의 왕 므낫세, 에돔의 왕 Kaushigabri, 모압의 왕 Musurri, 가자의 왕 sili-Bel, 아슈켈론의 왕 Metinti, 예그론의 왕 Ikausu, Gebail(비블로스)의 왕 Milki-ashapa, 아르왓의 왕 Matan-ba'al, Samsi-muruna의 왕 Abi-baal, 벧-암몬의 왕 Budu-il, 아슈도드의 왕 Ahi-milki, 이상 해상의 열 두 왕들과 Edi'al의 왕 Ekishtura, Kitrusi,의 왕 Pilagura, Sillua의 왕 Kisu, 팍파의 왕 Itandar, Sillu의 왕, Eresu, 쿠리의 왕 Damasu, Tamesu의 왕 Atmesu, Karti-hadasti의 왕 Damusi, Lidir의 왕 Unasagusu, 누레의 왕 Bususu, 이상 바다 한 가운데 Iatnana(키프로스)의 열 명의 왕, 총 22명의 히타이트 땅(시리아)와 바다와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들의) 모두를 불러들였노라. 나는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위대한 beams를 주었다.²³⁾

유다의 왕 므낫세는 아슈르바니팔의 역대기에 그의 첫 번째 군사작전 동안 봉신으로서 언급되었다.²⁴⁾ 므낫세는 아슈르바니팔이 즉위하는 해에 유배에서 풀려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 하 33:11-14, 18에 따르면, 여호와 께서 므낫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다

아슈르바니팔은 그가 수집한 훌륭한 도서관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니느웨에서 그는 수메르인, 바빌로니아인, 아시리아인 등 그 이전의 사람들의 신화, 전설, 연혁이 담긴 설형문자 판을 모은 것을 한 데 모아두었다. 아마도 19세기의 가장 풍부한 고고학적 발견일, 아슈르바니팔의 도서관에는 창조 서사시(에누마 엘리시)와 홍수이야기(길가메시 서사시)가 있다.

이러한 해석들은 서양인들이 근동적인 환경에 비추어 성서의 기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왕의 도서관에 있는 다른 서사시 문학에는 지하세계로 간 이슈타르와 독수리를 타고 승천한 에타의 전설이 포함되어 있다. 아카드의 사르곤도 모세처럼 여신 이슈타르에 의해 거두어지기 전까지는 유프라테스 강 위 갈대바구니에 놓여져 있었다는 전설이 있다.

설형문자판 중에는 지혜문학의 큰 말뭉치가 있는데, 여기에는 흔히 바빌로니아의 읍으로서 묘사되는 의로운 병자의 시가 포함되어 있다. 그 판에는 찬송가, 우화, 속담과 인기있는 이야기들도 쓰여있다..

아슈르바니팔의 왕립도서관은 1852 - 1853년에 호즈무드 라삼에 의해 니스웨의 왕궁과 나부 신전의 유적에서 발견되었다. 설형문자판의 조각들은 약 26,000개의 다른 문헌들을 나타내었다. 이 문헌에는 역사, 과학, 종교문학과 공식 파견 및 기록 보관, 업무 문서 및 서한들이 포함되어 있다. 과학 문헌은 의학, 식물학, 지질학, 화학과 수학을 다루었다. 아시리아의 왕 명부와 천문학 자료는 학자들이 고대 세계의 정확한 연대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슈르바니팔의 도서관은 아시리아-바빌로니아의 문명 전체의 이해를 위한 열쇠를 제공할 것이다. 아슈르바니팔은 학자이자 군인이었다.

B. 627-610 B.C.-- 아시리아의 붕괴

기원전 630년 아슈르바니팔이 사망한 후 그의 아들인 아슈르-에틸-이라니가 잠시 통치하였다(기원전 630년-기원전 627년)²⁵. 그 때 둘째 아들 신-사르-이슈쿰이 아시리아 왕위에 올랐다(기원전 627년-기원전 613년). 아들들은 아버지의 문제를 물려받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 아슈르바니팔보다 덜 성공적이었다. 이 약한 통치자들은 니스웨의 몰락을 가져왔고 곧이어 완전한 아시리아 제국이 무너졌다.

아슈르바니팔의 두 아들이 통치하는 동안 메로닥 발라단의 후손인 카데아 사람 나보폴라사르가 바빌론에서 권좌에 올라(기원전 627년-기원전 606년) 21년간 다스렸다. 바빌론 성벽 밖에서 나보폴라사르는 재위 첫 해에 아시리아인들을 물리쳤다. 키악사레스(기원전 615년-기원전 575년) 휘하의 메디아사람들은 아시리아 공격에 가담했다.

메디아와 바빌로니아 연합세력은 아시리아 제국의 종말을 재촉했다. 이집트는 메디아와 바빌로니아에 의한 탈취의 결과를 명백히 두려워 하여 이전의 적이었던 아시리아를 돕기로 결정했다. 기원전 617년까지 이집트의 군대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지만 효과적인 원조를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²⁶ 키악사레스는 기원전 615년에 아시리아의 옛 수도인 아슈르를 함락시켰다. 2년 후 나보폴라사르와 키악사레스는 힘을 합쳐 니스웨를 포위했다. 포위는 (5월부터 8월까지) 세 달간 지속되었다. 그 후 기원전 613년에 '대단히 위대한 도시' 니스웨가 함락되었다. B.M.(대영박물관 번호) 21901로 알려진 '니스웨 함락 연대기'에 따르면 나보폴라사르 14년에 니스웨가 함락되었다. 니스웨의 함락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31. [14년] 아카드의 왕은 군대를 소집[했고] Mandahordes의 왕(읍만 만다) [키악사]레스은 아카드의 왕을 [향해] 행진하여, ... 그들은 서로 만났다. 아카드의 왕... 그리고 [키악사]레스... [그...]들....그는 나룻배로 건너갔고 그들은 티그리스 강둑(상류)으로 진군하여... 니스웨에 맞서 [진을 쳤다]... 시완월부터 압월까지 세 번의 전[투가 벌어졌고, 그 후] 그들은 도성을 크게 공격했다. 압월 [...째 날, 도시는 점령당했고 큰 패배를 안겨 주었다] 전체 [인구에]. 그 날 아시[리아]의 왕 신사르이슈쿰 ...[로 도망쳤고], 그 도시의 셀 수 없이 많은 포로들을 그들이 데려갔다. 그 도시는 폐허와 잔[해 (터미로) 변했다.] 아시리아의 [왕]과 군대는 도망쳤다.

32. (하지만) (아카드의)왕과 아카드 왕의 [군대] 전 ...엘룰월 스무째 날에 키악사레스와 그의 군대는 그의 나라로 귀환했다. 그 후, 아[카드]의 왕은 ... 니시비스(지금의 터키 누사이빈)까지 행군했다. 그들은 ...와 Rusapu(의) 진리폼과 ga-lu-tu를 아카드의 왕에게, 니느웨에 가져왔다. ...[의 달에] 아슈루발릿은 ... 아시리아의 왕이 되기 위해 하란의 왕좌에 앉았다 ...의 달까지 ...[아카드의 왕이] 니느웨에 [머물렀다]...[디스리]월의 스무째 날부터 [아카드의]왕이...같은 디스리월에 마을에...²⁷⁾

성읍이 함락되자, 메디아와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그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였다. 아시리아인들은 아슈르-우발릿 2세(기원전 613년-기원전 610년)의 휘하에 아브라함과 테라가 수세기 전에 체류했던(창세기 11:31-32) 메소포타미아 상부의 도시 하란에서 재결합을 시도하였다. 기원전 611년, 나보폴라사르 16년에 바빌로니아와 그의 동맹군이 하란을 점령하였고²⁸⁾ 아시리아 역사는 모든 실질적으로 끝이 났다. 기원전 610년, 나보폴라사르 17년에 하란을 되찾기 위한 시도는 실패했고,²⁹⁾ 더 이상 아시리아의 패권에 대해 들은 이는 없다. 기원전 611년-기원전 610년에 있었던 군사행위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다의 왕 요시야의 사망날짜와 관련하여 제시되어 있다.

니느웨 멸망으로부터 약 백 오십년 전에 예언자 나훔이 니느웨의 타도에 대해 말했다. 그 예언자는 기원전 728년 경에 아시리아인들과 니느웨에 관해 이러한 것들을 예언하였다. (기원전 728년. + 115년 = 기원전 613년). 이는 요세푸스(*유대고대사Antiquities IX.xi.3*)에 따른 것이다.³⁰⁾ 기원전 753년 요나가 그들에게 설교한 지 백 오십년 후에 니느웨가 몰락한 것은 역설적이다.

성서의 예언자 나훔은 예언의 마지막 두 구절에 아시리아의 폭압에 대한 결과로 고통받았던 사람들(민족들)의 감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33.
 34. 앓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35. 네 귀족은 누워 쉬며
 36.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37.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38.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39. 네 부상은 중하도다
 40. 네 소식을 듣는 자가
 41. 다 너를 보고 손뻐을 치나니
 42.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43.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44. 나훔 3:18-19; 새국제성경

IV.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최후의 날

열왕기 상하(열왕기상 12:1-열왕기하 25:30)와 역대기 하의 (역대기하 10:1-36:23) 히브리 책들은 독자들에게 남부왕국 유다의 역사와 연대기를 알려준다. 물론 히브리 예언자들에게는 역사적, 연대적으로 많은 참고 문헌들이 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여 분단된 유다왕국은 357년 동안 존속하였다. 그것은 북쪽의 경쟁 왕국보다 135년 더 지속되었고 기원전 613년 니느웨가 멸망한 이후 25년 동안 작은 유다 왕국이 계속되었다. 유다의 수명은 기원전 945년(영국이 분립된 해)부터 기원전 588년(예루살렘이 몰락한 해)까지를 망라했다. 이제 바빌로니아가 유다를 파괴하게 한 사건들을 조사할 차례이다.

A. 729 B.C.-699 B.C.-- 히스기야의 치세

아시리아는 히스기야의 왕위기간 동안 여전히 지배적인 세계 세력이었고 북방 왕국에 그 요인을 증명하고 있었다. 사마리아는 히스기야 6년(열왕기하 18:10)에 함락되었다.

이 사건은 히스기야 재위 6년 쯤인 기원전 723년으로 추정된다. 히스기야 6년부터 14년까지의 기간은 8년이다(기원전 715년). 그 해, 산헤립은 아버지 사르곤의 터탄으로서 예루살렘을 비롯한 모든 율타리 안에 있는 유다의 성읍들을 상대로 쳐들어왔다(열왕기하 18:13-17; 역대기하 32:1-9; 이사야 36:1, 그 다음을 보라.). 라키슈 포위의 목적은 이집트의 어떠한 지원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단절시키는 것이었다. 아시리아의 왕은 라키슈에서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사신을 보냈다. 니스웨에 있는 산헤립의 궁벽에는 라키슈의 포위작전이 묘사되어 있다. 1849-51년에 오스틴 H. 레야드에 의해 발견되어 현재 대영박물관에 있는 이 작품은 왕좌에 앉아있는 아시리아의 왕인 산헤립 앞으로 라키슈의 약탈품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히스기야를 상대로 한 산헤립의 첫 번째 공격이었다. 히스기야 14년(기원전 715년) 산헤립이 아시리아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었던 동안에 일어났다. 예루살렘에의 항복 요구는 신성한 개입에 의해 좌절된다(열왕기하 19:35-36). 성경 구절 3개 중 1개에서 이야기를 읽어라(열왕기하 18:13- 19:36; 역대기하 32:1-23; 이사야 36:11-37:37). 성경은 이 사건을 포위가 아니라 항복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려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르곤 7년(기원전 715년)의 연표는 시리아-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마도 산헤립에 의해 이뤄진 군사활동을 보여준다. "내가 통치한 지 7년 쯤 되던 해,... 이집트의 왕 Pir'u, 아라비아의 여왕 Samsi, 바다와 사막의 왕인 사바사람 It'amra 로부터 나는 금과 산의 부산물, 보석들, 상아, 단풍(?)의 씨, 온갖 약초들, 말과 낙타 등을 공물로 받았다."³¹⁾ 사르곤이 '해안의 왕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다는 것에 주목하라, 그리고 열왕기하 18:14-16에서는 히스기야가 사르곤 7년에 조공을 바쳤음을 나타낸다.

히스기야 14년은 사르곤 17년의 해이기 때문에 산헤립 3년(기원전 702년)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다.³²⁾

히스기야 27년(기원전 702년)에, 산헤립 재위 3년째 되는 해에 아시리아의 두 번째 공격이 히스기야를 상대로 이뤄졌다. 아시리아연보가 산헤립 3년에 예루살렘에 대한 포위를 기록한 것은 분명한데, 이는 히스기야 14년에 그가 예루살렘에 항복을 요구했던 것과는 다른 것이다.

산헤립은 기원전 702년 서쪽으로 진군하여 시돈을 포위하고 아슈켈론까지 지중해 연안으로 진군했다. 후에 산헤립이 그의 연대기에서 뽐내는 것이 이 군사작전이다.

45. 세 번째 군사작전에서 나는 히타이트(시리아)에 맞섰다. ... 나의 명에에 굴복하지 않은 유대인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그의 강대한 성벽 도시 46개 뿐 아니라 그 주변의 수없이 많은 소도시들까지, 사다리를 타고, 포위 엔진(?)을 들고, 공격하고 도보하여 기습하고, 지뢰와 터널과 (방어벽의)틈(?)으로써 포위하여 (그 도시들을) 점령했다. ... 새 장에 갇힌 새처럼 그 자신도, 나는 그의 왕도인 예루살렘에서 침묵을 지켰다. 그에 맞서 서둘러 지은 토루들, ... (그래서) 나는 그의 땅을 약화시켰다. 전의 공물을 늘리고, 그(그들)에게 나의 위엄을 위한 (선물의 형태로) 해마다 내는 세금을 부과했다. 히스기야에게는, 내 위엄의 무시무시한 화려함이 그를 압도했고, ... 그의 딸들, 그의 부인들, 그의 남녀 음악가들을 나를 따라 나의 왕도인 니스웨로 데려오게 했다. 그는 공물을 바치고 예속을 받아들이고(예속하여) 전령들을 파견했다.³³⁾

예루살렘의 포위, 토루들, 그리고 히스기야의 딸들을 나르는 일은 성서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또한 연대기 체계는 이 이야기를 히브리 기록과 다르게 만든다. 성서본문과 아시리아 기록의 철저한 조사로, 모든 증거는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성서본문과 아시리아 기록에서 별개의 사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전 군사작전에 대한 인정은 "나는 전의 공물을 늘려 그에게 부과했다..." 등 그의 말 이다.

B. 699 B.C.-642 B.C.-- 므낫세와 아몬의 치세

아시리아는 기원전 630년까지 정계를 지배했고, 그 후 적들은 꾸준히 세력을 키워 아시리아를 사로잡았다. 히스기야의 아들과 손자인 므낫세(기원전 699년-기원전 644년)와 아몬(기원전 644년-기원전 642년)은 아시리아의 왕인 에살하돈과 아슈르바니팔의 봉신이였다. 므낫세는 분명히 바빌론이 이끄는, 아시리아에 대한 반란(역대기하 33:11-13)에 가담했지만, 교훈을 얻었고, 포로기간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C. 642 B.C.-610 B.C.-- 요시야의 통치

요시야는 히스기야의 세 번째 후계자 였는데, 그는 유다가 아시리아의 굴레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보았다. 잠시동안 그는 상당한 독립성을 되찾고 그의 지배 하에 그 지역을 확장할 수 있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열왕기하 22-23; 역대기하 34-35)으로 아시리아에 복종했던 마지막 흔적들이 사라졌고, 이제 나보폴라사르 휘하의 바빌론과 그의 동맹인 메디아의 공격에서 살아남기 위해 압박을 받고 있었다.

기원전 611년, 나보폴라사르 16년에 파라오 네코가 이끄는 이집트와 아슈르-우발리트 휘하의 아시리아가 하란에서 병력을 연합하여 아카드의 왕 나보폴라사르 지휘 아래의 바빌로니아 군의 서쪽 진격을 저지했다. 하란은 아시리아 제국의 마지막 거점이었다. 바빌로니아 연대기(연대기 3.58-65)에 따르면 하란은 바빌로니아 군에 함락되었다.

46. 열 여섯째 해 이야르 위에 아카드의 왕은 군대를 소집하여 아시리아로 진군하였다. [...]월부터 마르헤스반 월까지 그는 승리를 거두며 아시리아로 행군했다. 마르헤스반 월에 아시리아에서 왕위에 오른 [아슈르-우발] 릿(2세)[에 대항하여]... 아카드의 왕을 [도우]러 하란으로 온 우만만다는 군대를 모아 진군했다. 적에 대한 두려움이 아슈르-우발릿과 [그를 돕기 위해] 온 이[집트의]군대를 압도했고 그들은 도시를 버[리고] [...] 건너갔다. 아카드의 왕은 하란에 당도하여 [...] 성읍을 포위했다. 그는 그는 도시와 성전으로부터 광대한 양의 전리품을 가져갔다. 아달월에 아카드의 왕은 그들의 [...]를 떠났다. 그는 고국으로 돌아갔다. 아카드의 왕을 돕기 위해 온 우만만다가 철수했다.³⁴⁾

이 문헌은 기원전 611년에 있었던 '하란전투'에서 이집트와 아시리아 연합군이 하란에서의 거점을 잃었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다.

나보폴라사르의 열 일곱째 해인 기원전 610년은 유다의 왕 요시야가 므깃도에서 네코 왕을 막고자 했던 해 이다. 이집트의 네코와 아시리아의 아슈르-우발리트의 목적은 바빌로니아인들로부터 하란 성읍을 다시 함락시키고자 함이었다. 성경의 설명에서, 연대기의 작자는 요시야의 사신들을 통해 네코에 대한 흥미로운 진술을 다루고 있다. 그 진술은 네코와 아시리아가 바빌로니아군대와 이미 전쟁을 벌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역대기하 35:21). 이 사실은 히브리 원문의 놀라운 정확성을 보여준다.

네코는 하란에서 아시리아군과 연합하기 위해 북쪽으로 군대를 진군시키고 있었다. 그는 이집트를 위해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기를 원했다. 바빌로니아는 강력한 제국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이집트 영토와 바빌로니아 사이의 완충국으로서 약한 아시리아를 유지하는 것은 네코에게 이점이였다. 요시야는 반(反) 아시리아인이었고 네코의 계획이 성공한다면 유다의 주가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 때 역사가들은 요시야가 왜 파라오가 히브리인들의 속적인 아시리아와 싸우러 가던 중에 네코에 '대항하여' 진격했는지 당황했다. 1923년에 C.j. 개드가 발표한 'The Newly Discovered Babylonian Chronicle' 라는 제목의 바빌로니아 연대기는 이 모든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았고 파라오 네코가 아시리아인들에 대항하여 진격한 것이 전혀 아니고, 그들을 돕기위해 왔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동요하는 시대에 대한 정보의 주요 원천은 구약성서와 함께, 주요 역사적 사건들의 압축적이지만 비교적 객관적인 연대기 요약인 바빌로니아 연대기 이다.

요시야의 죽음은 연대기 작가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47.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테 강가의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므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쏘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역대기하 35:20-24

성경은 요시야의 의로운 성격 때문에 예언자 예레미야가 왕의 사망 소식을 듣고 "요시야를 위해 애가를 지었다" (역대기하 35:25)고 기록하고 있다.

연대기의 작자는 파라오가 갈그미스를 치러가는 길(역대기하 35:20)이라고 진술한다. 뒤에 나오는 문헌은 바빌로니아 연대기(연대기 3.66-75)에서 이집트의 네코와 아시리아의 아슈르-우발릿이 어떻게 갈그미스로부터 동쪽으로 몇 마일 떨어진 하란의 성읍을 다시 함락시키려 했는지에 관한 것이다.

48. 66 <열 일곱째 해>: 타무즈 월에 아시리아의 왕 아슈르-우발릿 (2세)와 이집트 [...]의 대군이
49. 67 (유프라테스)강을 건너 (하란을) 정복하기 위해 그곳으로 진군하여 [...] 그들이 (하란을) [포위]했다.
50. 68 그들은 아카드 왕이 내부에 배치한 수비대를 물리쳤다. 그들이 (그것을) 물리쳤을 때 그들은 하란을 상대로 진을 쳤다.
51. 69 엘룰 월까지 그들은 그 도시를 상대로 싸웠지만 아무 것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철수하지 않았다.
52. 70 아카드의 왕은 그의 군대를 도우러 갔고 [...] 그는 Izalla에 올라갔고
53. 71 산중의 많은 도시들이 ...{...} 그는 그들의 [...]에 불을 질렀다.
54. 72 그 때에 [...]의 군대가
55. 73 [행]군하여
56. 72 우라르투 지방까지 다다랐다
57. 73 그 땅에서 ... [...] 그들은 약탈했다.
58. 74 [그 왕이 [안에 주둔하게 했던] 수비대가 나왔다.
59. 75 그들은 [...]로 올라갔다. 아카드의 왕은 고국으로 돌아갔다.³⁵⁾

여러 군데 본문이 심하게 훼손되었지만, 아시리아의 아슈르-우발릿 왕과 함께 이집트의 왕 네코가 바빌로니아군의 서쪽 진격을 저지하려는 두 번째 시도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하

란 재포위는 실패했다. 바빌로니아의 군주 나보폴라사르 17년(기원전 610년), 선한 요시아 왕이 팔레스타인을 여행하는 동안 이집트의 네코왕을 막으려 한 것은 가장 불행한 일이다.

D. 610 B.C.-- 여호아하스의 3개월 통치

요시야가 죽은 뒤에, 그 땅의 백성들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하스에게 성유를 받았다. 뒤에 오는 역사적인 사건들은 연대기 작자들에게 의해 요약된다.

60.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이십삼 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백 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역대기하 36:1-4.

바빌로니아 연대기에서의 마지막 글은 나보폴라사르 17년 동안 이 사건들이 어떻게 일치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바빌로니아의 문헌에서는 하란을 탈환하기 위한 전투가 타무즈월(6월-7월)부터 엘룰월(8월-9월)까지 지속되었다고 적혀 있다. 나보폴라사르가 오자, 하란을 쟁취하기 위한 전투는 순식간에 끝났고, 파라오 네코는 하맛 땅에 있는 리블라로 도망친 것으로 보인다. 열왕기 하 23:33에 따르면 여호아하스는 그 장소에 끌려갔다. "바로 느고가 그 [여호아하스]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백 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므깃도에서의 전투가 끝난 지 석 달만에 오론텐스 강 위의 리블라에 도착하여 그는 유대인들이 아버지의 왕위에 올려놓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불러 쇠사슬을 채웠다. 네코는 그 때, 요시야의 또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기원전 610년) 유다의 왕으로 세워 그에게 은 백 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공물로 부과했다. 불행한 여호아하스는 파라오 네코에 의해 이집트로 끌려가 그 곳에서 죽었다(열왕기하 23:34).³⁶⁾ 요시야가 죽고 여호아하스가 폐위되면서 유다의 왕좌는 일시적으로 이집트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E. 610 B.C.- 599 B.C.-- 여호야김의 통치

이 시기에 파라오 네코가 옛 이집트 제국의 정복 전역을 되찾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흥미롭다. 시리아에서의 네코의 패권과 그의 이름을 상형문자로 표시한 석비의 조각들이 시돈에서 발견되었다. 유다의 새로운 왕인 여호야김은 근시안적으로 새로운 호화 궁전을 건설하는 데 강제노동을 동원하며 위협받는 나라의 재산을 낭비했다(예레미야 22:13-19). 예레미야는 예언에서 다음과 같이 여호야김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다.

61.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우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앎이 아니냐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러나 네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예레미야 22:13-19.

예언자 예레미야의 임기는 요시아 13년(예레미야 1:2)에 시작되어(기원전 629년) 예루살렘이 쇠락한 기원전 588년까지 40년간 이어져 왔다.

요시아 통치 후기를 특징으로 하고 예레미야의 유다에서의 임기와 동시간대인, 아시리아, 이집트, 바빌론 간에 있었던 세계패권 장악을 위한 세 개의 강대국의 경쟁에서 바빌론은 유다의 위대한 예언자가 예언한대로 승리했다.(예레미야 44:30, 46:1-28).

기원전 606년 나보폴라사르의 아들이자 바빌론의 왕세자인 느부갓네살은 이집트의 네코 2세를 갈그미스 전투에서 크게 물리쳤고, 모든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의 지배를 주장했다. 이 전투는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긴 4년(예레미야 46:2)에 일어났다. 갈그미스에서의 이집트에 대한 '히브리 예언자'의 산탁은 예레미야46:1-12에서 주어진다.

62. 이방 나라들에 대항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와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테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노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쩔이나 두려움이 그들이 사방에 있음이로다 말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테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 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같고 나일 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 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 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오지니라 하거니와 그 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테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임이로다 처녀 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네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네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

63.

길레아드의 유명한 연고조차도 이집트의 네코를 돕지 못했다. 그의 패배와 몰락은 신의 계명이기 때문이다.

나보폴라사르 21년, 황태자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 전투를 위해 아카드의 군대를 수집하는 동안 병든 바빌로니아의 군주는 집에 머물렀다. 전투와 그 결과는 바빌로니아 연대기에 명시되어 있다. (연대기 5.1-8, Obverse)--

64. [스물한째 해] : 아카드의 왕이 집에 머물렀고 (그 동안) 그의 아들 중 가장 연장자(이자) 왕세자인 느부갓네살(2세)이 [아카드의 군대]를 소집했다. 그는 유프라테스 강변의 갈그미스로 그의 군대를 이끌고 진격했다. 그는 갈그미스에 진을 치고 있는 [이집트의 군대에 맞서기 위해] 강을 건넜다. [...] 그들은 전투를 했다. 이집트의 군대가 그의 앞에 후퇴했다. 그는 그들에게 [패배를] 안겨주었다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끝내버렸다. 간신히 패배를 면할 수 있었으나, 패배를 극복하지 못한 [이집트의 나머지 군대]를 아카드의 군대가 하맛 지방에서 추월했다. 그들(아카드 군대)은 그들에게 패배를 안겨주었고, 단 한명의 이집트인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그 당시의 느부갓네살(2세)은 모든 하[맛] 지방을 정복했다.³⁷⁾

요야김 4년(예레미야 46:2)과 나보폴라사르 21년이자 느부갓네살의 즉위해(기원전 606년) 5-6월로 연대가 추정되는 갈그미스 전투 사이의 동기화가 이 시기의 연대기 재건, 즉 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정확성을 확인시켜 준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8)

기원전 606년에 느부갓네살 2세는 바빌론의 왕이 되었다. 그의 아버지인 나보폴라사르는 바빌로니아 연대기(Chronicle 5:9-11, Obverse)가 진술하듯, 기원전 606년 7월 20일(그레고리력)에 죽었다.

- 65. 9 21년간 나보폴라사르가 바빌론을 통치했다.
- 66. 10 그는 아브월 여덟째 날에 죽었다. 엘룰월에 느부갓네살 2세는 바빌론에 돌아왔고
- 67. 11 엘룰월 첫째날에 그는 바빌론 왕위에 올랐다. 39)

기원전 606년 8월 12일(그레고리력), 느부갓네살은 '왕들의 왕', 바빌론의 왕이 되었다.

느부갓네살이 팔레스타인의 주인이 된 지 약 4년 후인 여호야김 8년(기원전 601년)에 여호야김은 그에게 충성을 바쳤다(열왕기하 24:1). 그 때부터 히브리 남부 왕국의 종말까지 유다의 왕들은 바빌로니아 왕의 신하였으며, 그들이 새로운 굴레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때 비싼 대가를 치렀다.

열왕기하 24:1 에서는 여호야김이 3년동안 느부갓네살의 신하였음을 나타낸다. 이 기간은 유대의 왕 9년에서 11년까지이며, 느부갓네살 왕의 5-7년에 해당한다 (기원전 601-600-599년). 이거슨 바빌로니아 연대기에 의해 확인되었다(연대기 5.5-13, Reverse).40) 이 문서는 느부갓네살 5년, 6년, 7년 동안 전승하며 하루로 행진한 것을 증명한다.

기원전 601년, 여호야김의 첫 번째 항복과 느부갓네살 5년에 바빌론의 왕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로 향했다, 예레미야 46:13-26. 이 때에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했고(열왕기하 24:!) 예레미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였다. 이에 관해 요세푸스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들이 이집트로부터의 희망에 얼마나 헛되이 의지하는지, 글고 바빌론의 왕에게 도시가 어떻게 함락될 것이며 왕인 여호야김은 그에 의해 진압될 것이라고 날마다 예언했다. *유대고대사* X.vi.2.

기원전 599년은 또한 여호야김 11년째 해였다. 아카드의 왕은 그를 묶어 '구속하고, 바빌론으로 끌고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다 (역대기하 35:6). 하지만 이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여호야김은 아카드의 왕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그는 여호야김의 시체를 매장하지 말고 성벽 앞에 던지라고 명령했다;41) 이 정보는 요세푸스에 의해 주어졌다(*유대고대사* X.vi.3). 이것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42) 다니엘이 추방된 것은 이 때 이다(Daniel 1:1).

F. 599 B.C.- 598 B.C.-- 여호야김의 3개월 통치

여호야김은 그의 아버지가 죽은 이후 예루살렘을 다스렸다(열왕기하 24:8). 열여덟살의 군주는 석 달 열흘 동안만 통치했다.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포위는 열왕기하 24:10-16 에서 뿐 아니라 바빌로니아 연대기(연대기 5.11-13, Reverse)에서도 발견된다

- 68. 11 일곱째 해, 기슬루월에 아카드의 왕이 군대를 소집하여 Hattu로 진격했다
- 69. 12 그는 유다의 성읍에 진을치고 아달월 둘째 날에 성을 포위했다 (그리고) 왕을 잡았다

70. 13 그는 자기가 선택한 왕으로 그 성읍에 임명하고, 광대한 공물을 건어 들여 바빌론으로 가져왔다.⁴³⁾

역대기하 36:10에 따르면, 추방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바빌론으로 가는 길에 올랐을 때 '그 해는 끝이 났다'. 추방된 사람들 중에는 여호야긴과 그의 어머니, 아내, 내시들과 권세있는 자들, 장인과 대장장이들과 용감하여 전쟁에 적합한 사람들이 있었다 (열왕기하 24:15-16). 이 시기에 추방된 다른 이들에게는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있었다 (에스더 2:5-7). 이 사건들은 예레미야가 칼데아인의 손에 있는 여호야긴(고냐)의 운명에 대해 예언했던 대로 정확히 발생했다. ⁴⁴⁾ 여고냐가 겨우 3개월을 통치했지만 그에게는 기원전 599-598년의 통치기간이 주어졌다는 것에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성서의 해는 1월 1일 이후 두 어달 후인, 봄에 바뀌는 음력 해이다. 바빌로니아의 해는 성서의 해와 동시에 바뀐다. 여호야긴은 성서의 열두째 달에, 여호야김은 아홉째 달에 붙잡혔는데, 둘 다 느부갓네살 7년이었다.

바빌론에서 여호야김은 37년간 정치범이었다(예레미야 52:31-34). 이 요인은 그가 '자손이 없는' 상태로 남기를 원하게 되는 상황에 기여했다(예레미야 22:24-30). 그는 느부갓네살의 계승자인 에월브로닥에 의해 마침내 석방되었다(기원전 563년-기원전 561년). 여호야김의 36년간 수감기간은 기원전 599년 부터이다(*비교, 에스더* 9:20-22). "37년"에 대한 히브리식 표현은 36년, 즉 완전한 37년이 아니다. 그레고리력으로 여호야김이 포로가 되기 시작하는 날짜는 기원전 598년 2월 19일, 일요일이다. 이 날짜는 바빌로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히브리식 날짜인 아달월 2일과 같다 (연대기 5:11-13, Reverse). 여호야김이 석방된 날짜는 그레고리력으로 기원전 562년 3월 7일 목요일이다. 그러므로 기원전 598년(여호야김이 추방당한 해)에서 36년을 뺀 것은 기원전 562년(에월브로닥이 즉위한 해, 그리고 왕 여호야김이 감옥으로부터 출소한 해)이다. 에월브로닥은 그 왕에게 여생동안 매일 먹을 것을 주었다(열왕기하 25:27-30).

성서의 역사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이 특이하게 바빌로니아의 기록에 의해 확인 되었는데, 이는 Yahud 땅의 Yaukin, 즉 유다 땅의 여호야김을 왕실의 배급을 받는 사람 중 하나로 기록하고 있다.

(문서 바빌론 28122, obverse 2:-33)

71. ...I Ia-'-u-km, 왕에[게]...
72. to the qiputu-house of ...
73. ... Shalamiamu에게...
74. ... 티로에서 온 126명의 사람에게...
75. ... for Zabiria, the Ly[dian]...

(문서 바빌론 28178, obverse ii 38-40)

76. Ia[...]의 왕, [Ia]-'-u-kin에게 (기름) 10 (실라)
77. 유다 왕의 [아]들에게 (기름) 2 1/2 실라
78. (Ia-a-hu-du)
79. 유다에서 온 8명에게 4 실라 (Ia-a-hu-da-a-a)...

(문서 바빌론 28186, reverse ii 13-18)

80. Arvad출신의 세 목수들에게 각각 (기름) 1/2 실라, 총 1 1/2 실라
81. 마찬가지로 Byblos출신에게 각각 1/2 실라, 총 11 1/2 실라
82. 마찬가지로 그리스 출신에게 각각 1/2 실라, 총 3 1/2 실라
83. 목수 Nabuetir에게 1/2 실라
- 84.

85. Ia-ku-du(즉, 유다)왕의 아들인 Ia-ku-u-ki-nu에게 10 실라
 86. 유다(Ia-ku-du) 왕의 아들 다섯에게 Qana'a [...]를 통해 2 1/2 실라⁴⁵⁾

1939년에 에른스트 F. 바이드너에 의해 '바빌로니아 썰기문자 문서에서의 유다 왕 Jojaichin'이라는 제목의 작품에서 설형문자 판들의 모음이 출판되었다. 이 판들에는 기원전 595년에서 기원전 570년 사이에 바빌론에 있는 포로들과 숙련된 일꾼들에게 배급된 기름과 곡식의 배급품들의 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이 바빌로니아 문헌들에서 여호야긴이 '왕'이라고 불리는 것을 주목하라.

또다른 고고학적 발견은 유다에서 여호야긴이 3개월 10일간 통치한 것과 바빌론에서의 유배를 증명한다. 팔레스타인에서는 글자가 새겨진 병의 손잡이가 세 개 발견되었는데, "여호야긴의 간사인 엘리야김에게 속해있다"고 새겨져 있다.⁴⁶⁾ 이 중 두 개는 유다 남부의 데비르에서,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5마일 떨어진 벳세메쉬에서 발견되었다. 모두 원래 도장을 찍어 만든 것이다. 이 비문에 근거하여 왕이 감금되어 있는 동안에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여호야긴의 왕가재산의 관리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시드기야가 여호야긴의 재산을 도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G. 598 B.C.-588 B.C.-- 시드기야의 치세

여호야긴이 느부갓네살 7년(바빌로니아 추정 8년 바빌로니아 연대기) 또는 히브리식 추정(열왕기하 24:12)으로는 8년에 포로로 잡혀가면서 바빌론의 왕은 예루살렘에 '자신이 선택한 왕'을 임명하였다. 그 왕은 여호야긴의 아버지의 형제인 맛다냐인데, 바빌론의 왕에 의해 시드기야로 이름이 바뀌었다. 시드기야는 성경의 해가 바꾸기 며칠 전 왕이 되었다. 그래서 그의 즉위 11년이 되는 해는 우리의 달력 추정으로는 10년이 되었다. 대조적으로, 여고냐는 1년을 더 얻었고, 시드기야는 1년을 잃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기원전 598년 - 기원전 588년)는 약한 왕이었다. 왜냐하면 애매한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많은 유대인들은 그의 조카 여호야긴이 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여전히 합법적인 통치자로 여겼다. 또한 바빌로니아인들은 여호야긴을 유다의 진정한 왕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선행을 보장하기 위해 바빌론에서 그를 인질로 잡았다. 예언자 에스겔도 여호야긴이 유배 중임에도 그를 왕으로 여겼다. 선견자는 그가 예지한 모든 것들의 날짜를 다음과 같이 매긴다. "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힌지 5년이 되는 달의 다섯째 날에" 사실 에스겔은 여호야긴이 포로가 되는 것부터 그의 모든 예지력의 날짜를 기록했다. 동방의 왕은 신하들의 충성맹세의 결과로 죽을 때까지 왕으로 남아있었다.

아카드 왕의 꼭두각시로서 시드기야는 이집트의 도움을 구하고 바빌론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라는 조언자들과 신하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었다. 기원전 589년까지 친-이집트당은 시드기야의 궁정에서 원하는대로 했다. 이 어리석은 행동방침에 대한 예레미야의 엄숙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파라오 호프라(그리스 역사가들은 Apries)에게 도움을 청하고 느부갓네살에 대해 반란을 일으켰다.

예언자가 시드기야에게 친-이집트인 조언자들의 충고를 저지하고 거부하도록 권했지만, 약한 왕은 예루살렘에 파멸을 가져다주는 길을 갔고, 유다로 유배되었다. 거짓 예언자들은 여호야긴 왕을 포함하여 포로가 된 사람들이 곧 유다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다(예레미야 28:1-17). 한편, 예레미야는 포로들에게 바빌론에서 그들의 위치를 최대한 활용하기를 촉구했다. *The prophet, Jeremiah, knowing the impending doom awaiting Jerusalem, suggests that exiles live in Babylon as though they would be there for a number of* (예언자 예레미야는 곧 닥칠 재앙이 예루살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포로들이 마치 그곳에 ~)

바빌론의 포로들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의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87.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88.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29:4-7, 10

그러므로 포로들은 거짓선지자 하나냐가 예언한 2년 동안이 아니라 70년동안 바빌론에 있었을 것이다(예레미야 28:3-4).

아카드 왕의 침략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 아세가, 라키시, 황금의 도시 예루살렘만이 남기까지 유대인의 근거지들이 하나하나씩 느부갓네살의 군대 앞에 함락되었다.

예언자 예레미야의 생애와 시기는 1935년 J.L. 스타키가 발견한, 고대 페니키아의 문자에 히브리어로 새겨진 18개의 오스트라카를 통해 선명히 조명되었다.⁴⁷⁾ 이 귀중한 히브리 문서들은 라키시(Tell-ed-Duweir) 성읍의 출구에 인접해 있는 경비실에서 발견되었다. 라키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서쪽으로 대략 25마일 떨어져 있는 교대 유대의 요새였다. 1938년 라키시에서의 마지막 군사작전에서 세 개의 오스트라카가 추가로 발견되었고, 이 발견은 뭔가가 새겨진 총 21개의 질그릇 조각으로 증가되었다.⁴⁸⁾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말한 예언 중 하나에서 라키시의 오스트라카에 의해 두드러지게 조명되는, 유대의 요새화된 도시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흥미롭다. 예언자를 통해 내뿜은 신성한 신탁은 다음과 같은 연대기적 시간대에 놓여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키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예레미야 34:6-7). 라키시 서신의 대부분은 호사야라는 사람이 라키시에서 유대의 군 사령관 Yaosh에게 전하는 쪽지들이다. 호사야는 아세가의 연기신호를 볼 수 있는 위치의 라키시 북쪽의 전초기지를 명백히 맡고 있었다. 네 번째 편지에는, "그리고 아세가를 보지 못하니, 주님이 주신 모든 표시에 따라 우리가 라키시의 신호들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하라."⁴⁹⁾ 이것은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일 뿐이지만, 유다왕국 최후의 날에 유대 군대가 사용하는 신호체계를 조명하고 있다. 세펠라의 아세가에 있는 성서 유적지는 1898년에 팔레스타인 탐험기금의 프레데릭K.블리스에 의해 발굴되었다. 그 성읍의 튼튼한 요새는 그곳의 발굴로 증명되었다.

아마도 전체 오스트라카 수집품들 중에서 가장 의미있는 편지는 세 번째 편지일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89. 당신의 종 호사야가 나의 주인 Yaosh에게 알려주려고 보낸 것이다. 야훼께서 나의 주인으로 하여금 평화의 소식을 듣게 하소서! 당신은 편지를 하나 보냈다, 비록 당신이 보낸 편지로 당신의 종이 마음아파 했지만, 나의 주인은 당신이 종에게 어제 저녁에 보낸 그 편지에 대해 종을 이해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나의 주인은 "이해할 수 없느냐? 서기를 불러라!" 야훼께서 살아계심에 아무도 나를 위해 서기를 부르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에게 온 어떤 서기관도 내가 그를 부르지 않았고, 그에게 어떠한 것을 주지도 않았다.

90.

91. 그것은 당신의 종에게 보고했다. “엘나단의 아들 고니야가 이집트로 가기 위해 내려왔다. 그리고 아히야의 아들 호다위야와 그 부하들이 그에게서 ...을 얻기를 원하였다”
92. 그리고 예언자를 통해 앏두아의 아들 살룸에게 온 왕의 종 도비야의 편지에 대하여 말하기를, “주의하라!”, 당신의 종이 그것을 나의 주인에게 보냈다. 50)

호사야는, 여러 오스트라카에 나오는 많은 이름들과 마찬가지로 성서 속의 이름이고, 예레미야 42:1 과 느헤미야 12:32 에 나온다. Yaosh(요아스)는 요시야의 히브리식 이름의 약칭이다. 신의 이름은 야훼 또는 여호와와 이름 속 자음들인 Tetragrammaton(야훼의 4자음 문자)인 YHWH를 사용하여 언급된다. 오스트라카는 좋은 신의 이름의 조합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호사야, (Yaosh)요시야, 고니야, Hadaviah, 아히야와 도비야. iah 또는 jah 는 Yah와 같이 여호와 혹은 야훼의 단축형이다.

H. 588 B.C.-- 유다의 총독, 그다랴

여호와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하여 느부갓네살에게 일시적 승리를 허락하셨다. 연대기의 작자는 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칼데아의 왕이 바빌론으로 데려갔다고 진술한다. 그들은 페르시아 왕국이 통치할 때까지 그와 그의 아들들의 종이였다. (역대기하 36:20). 예레미야는 앞서 70년의 바빌론 유수(예레미야 25:8-14) 예지한 바 있다.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유다를 정벌하셨으므로, 그는 바빌론의 왕을 '나의 종'이라고 불렀다(예레미야 25:9). 70년 포로기와 관련된 또다른 예언에서 울먹이는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거라 확인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29:10.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영구적으로 그리고 이롭게 바빌론에 정착하도록 격려하고 구조의 날을 갈망하게 하였다(예레미야 29:4-10).

유다의 상태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폐허가 된 채로 남아있었다. 주요 시민들이 추방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둘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 땅에 남아있는 인구는 대부분 문제를 일으키기에는 너무 약하다고 여겨지는 가난한 소작농들로 이뤄져 있었다. 유다의 적막감도 여전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칠십 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역대기하 36:21.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빌론의 왕은 유다 지방의 총독으로 그다랴를 임명하고 미스바에 본부를 두었다(열왕기하 25:23). 그다랴의 아버지는 예레미야의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는 귀족이었다(예레미야 26:24). 그의 할아버지인 샤반은 아마도 대개혁 당시에 요시야의 궁정에서 관료였던 그 샤반일 것이다(열왕기하 22:3). 이 히브리 비문 중 라키시에서 '집안을 넘어선 그다랴에게'라는 도장이 발견되었다.⁵¹⁾ 라키시에 이 도장이 존재하는 것은 그다랴가 유다의 마지막 수상 중 하나 였다는 것을 암시한다. '집안을 넘어선 자'라는 호칭은 왕의 옆에 있는, 그 땅의 최고 관료에게 사용되었다.

그다랴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한 것은 남아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회유의 제스처였을지도 모른다. 신임 주지사는 백성들을 평범한 상태로 돌아오게 하려고 했다(예레미야 40:7-10). 하지만 이스마엘과 공모자 무리들이 미스파의 바빌로니아 수비대에서 그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과 그다랴를 죽이면서 그의 노력들은 좌절되었다(예레미야 41:1-3). 이스마엘은 암몬에게로 도망쳤고 남은 유대인들은 임명된 총독을 죽이는 이런 반항행위를 한 후 느부갓네살의 복수를 두려워했다. 예레미야의 충고와는 달리 그들은 이집트로 피신하기로 결정했고 선지자는 그들과 동행해야만 했다(예레미야 42:1— 44:30).

아시리아, 이집트, 바빌론의 세 제국이 세계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는 역사에서 흥미로운 영역이다. 불행히도 이스라엘과 유다의 작은 왕국들은 십자포화에 휘말렸다. 다니엘이 예언한대로 바빌론은 국가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V. 588 B.C.-- 천문학적으로 정해진 예루살렘의 멸망

A. 안식년

기원전 590년 예루살렘과 유다는 공개적으로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대해 반란을 일으켰다(열왕기하 24:20). 이는 느부갓네살 16년이며, 시드기야 9년의 해였다(열왕기 25:1).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은 히브리력으로 테벳월 10일(기원전 590년 12월 21일, 일요일)이었다. 에스겔의 부인이 죽었고 주께서는 선지자에게 그 날을 기록하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날 바빌로니아 왕이 예루살렘에 대항하여 싸웠기 때문이다(에스겔 24:1-18).⁵²⁾

열왕기하의 저자는 예루살렘 포위에 대한 첫 부분의 세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준다.

93. 시드기야 제구 년 열째 달 십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십일 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해 넷째 달 구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II Kings 25:1-3

이 사건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느부갓네살이 강제로 철수하기 전에 일어난 것으로, 시드기야가 의지했던 이집트인들과 싸울수 있도록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이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도움을 청하러 온 호프라의 군대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칼데아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불태울 것이라고 경고했다.⁵³⁾

또한 에스겔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한 지 대략 일 년후(그레고리력 기원전 589년 12월 13일)에 여호야킨이 포로로 잡힌 지 10년 째 되는 히브리력인 테벳월 12일에 이집트에 대한 예언의 날짜로 적었다는 것도 주목할만 하다(Ezekiel 29:1-16). 아마도 이 시기에 에스겔이 이집트에 대한 예언을 받았을 때 바빌로니아군과 이집트 군이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것 같다.

기원전 589년,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레미야가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동안,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그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의 발을 사라고 하셨던 것이 또다른 연대기적 특성이다(예레미야 32:1-2, 6-15). 주의 말씀 "이 기업을 무를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예레미야 32:7,은 기원전 589년이 안식년이었음을 나타낼 것이다. ⁵⁴⁾ 그러나 기원전 589년이 안식년이었다는 더 좋은 증거는 예레미야 34:8-10에서 언급된 노예들의 석방이다(*히브리어*, 신명기 15:1-18). 이후 바빌로니아인들이 포위를 풀자 노예들은 다시 항복했다(예레미야 34:1-14).⁵⁵⁾ 예루살렘이 안식년 다음 해에 함락되었다는 사실은 그 파괴의 해를 절대적인 연대로 추정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유다의 수도의 종말은 빨랐다. 바빌로니아 군대를 재빨리 이집트 쪽으로 몰아갔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포위공격을 계속했다. 안식일인 타무즈월 9일에는 아카드의 왕에 의해 예루살렘 성벽에 침입당했다(열왕기하 25:3; 예레미야 52:6).

모든 군인과 시드기야 왕은 밤에 예루살렘을 탈출했다(기원전 588년 7월 4일, 열왕기하 25:4; 예레미야 52:7). 칼데아의 군대는 왕의 뒤를 쫓았고, 예리코 평원에서 그의 군대가 그에게서 흩어지는 동안 그를 따라잡았다.

그 뒤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리블라로 올라와서 바빌로니아 왕이 그를 심판하였다.

거기에서 그들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였고,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 행동 사슬로 그를 묶은 뒤 바빌론으로 데려 갔다. 이 비극적인 사건들은 예레미야가 전에 왕에게 했던 말을 이행하기 위해 일어났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히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 37:17. 예루살렘의 완전한 파괴는 한 달 후에 이뤄졌다.

예루살렘이 불타고 있을 때, 시위대장 느부사라단과 함께 온 칼데아의 군대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빙 둘러 부수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은 무자비하게 약탈당하고 쑥대밭이 되었다.

B. 안식일

안식일인 아브월 7일(기원전 588년 7월 31일 그레고리력), 느부갓네살 왕 19년, 느부갓네살의 신하인 느부사라단 시위대장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과 궁전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에 불을 질렀다(열왕기하 25:8-9). 열왕기하 25장의 히브리 문헌은 황금의 도시를 초토화시켰던 불이 난 날짜와 같이 연대기적 관점에서 쓰여져 있으며, 바빌론 왕의 19년이 히브리식으로 계산되고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이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94.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열아홉째 해 오월 칠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와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열왕기하

서기 70년 로마인에 의한 제 2성전 파괴일도 그로부터 7,657년 뒤의 아브월에 일어났다.

역대기하의 책에는 그 도시와 성전이 화염에 휩싸인 날짜가 나와있지 않다. 그러나 예레미야 52:12에서 후자의 부록은 연대순으로 배열한 열왕기하 25:8-9와는 다소 다르다. 본문은 솔로몬 성전 파괴일로 아브월 10일(기원전 588년 8월 3일)을 가리킨다.

95.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열 아홉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와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예레미야 52:12-13

그 두 텍스트의 차이는 쉽게 조정될 수 있다. 열왕기하에 따르면 그 성전은 히브리 달력의 여덟 번째가 될, 아브월의 일곱 번째 날 저녁에 점화 되었고, 불은 여덟 번째 그리고 아홉 번째까지 계속되어 아브월 열 번째에 의해 완전히 소실되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제 2성전이 타는데 이들이 걸렸다고 한다.⁵⁶⁾ 따라서 예레미야 52:12-13의 연대기 자료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날짜를 보여준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읍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 말했을 때 믿지 않았다. 그들은 '여호와와 신전' '여호와와 신전' (예레미야 7:4)라고 했지만, 여호와와 성전이 화염에 휩싸인 것을 보고 거짓말을 믿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레미야는 정확히 예언하였지만, 그들의 회개가 너무 늦었다.

역대기하 36:14에 따르면 신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중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바빌로니아 탈무드는 성전 파괴에 대해 다른 날짜를 제시한다. 그 날짜는 아브월 9일이다(기원전 588년 8월 3일, 그레고리력) 탈무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96. 첫 번째 성전이 파괴된 날은 아브월의 아홉 째 일이고, 안식일[즉, 일요일]에 나가는 날이었고, 일곱 번째 [안식]해가 끝날 무렵이었다. [성전의] 파수꾼은 여호야립의 사람이었고,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은 연단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무슨 노래였느냐? 주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내리셨으니 그들을 그들의 악으로 끊어 버리실 것이다. 적들이 와서 그들을 압도하기 전에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베실 것이라고 [시편과 함께] 완성할 겨를이 없었다.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⁵⁷⁾ 미쉬나Mishnah Tract, 'Arakin 11b

탈무드식 날짜는 성전의 마지막 화재, 즉 성전이 저절로 불에 타고 있을 때를 나타낸다. 이러한 점에서 컴퓨터 달력은 역사에서 각각 유대의 날짜에 요일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가치가 있다. 기원전 588년에 아브월 일곱째(열왕기하 25:8-9)는 토요일에 해당된다. 그것이 기원전 587년 수요일에 일어났고, 기원전 586년 화요일이었기 때문이다. 탈무드(Mishnah Tract, Ta'anith, 29a)는 아홉 번째의 전 날이 일요일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해질 무렵부터 히브리식으로 계산하면 일요일인 여덟째가 없어지는 것으로도 묘사될 것이다. 이것은 기원전 588년의 컴퓨터 달력과 일치한다. 즉,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의 시작이 일요일이었다면, 일곱째는 토요일이었다(안식일). 기원전 587/586년 등 기원전 588년과 가까운 다른 해의 요일은 학자들에 의해 예루살렘의 멸망한 날로 제시한 날짜로 일치시키는 게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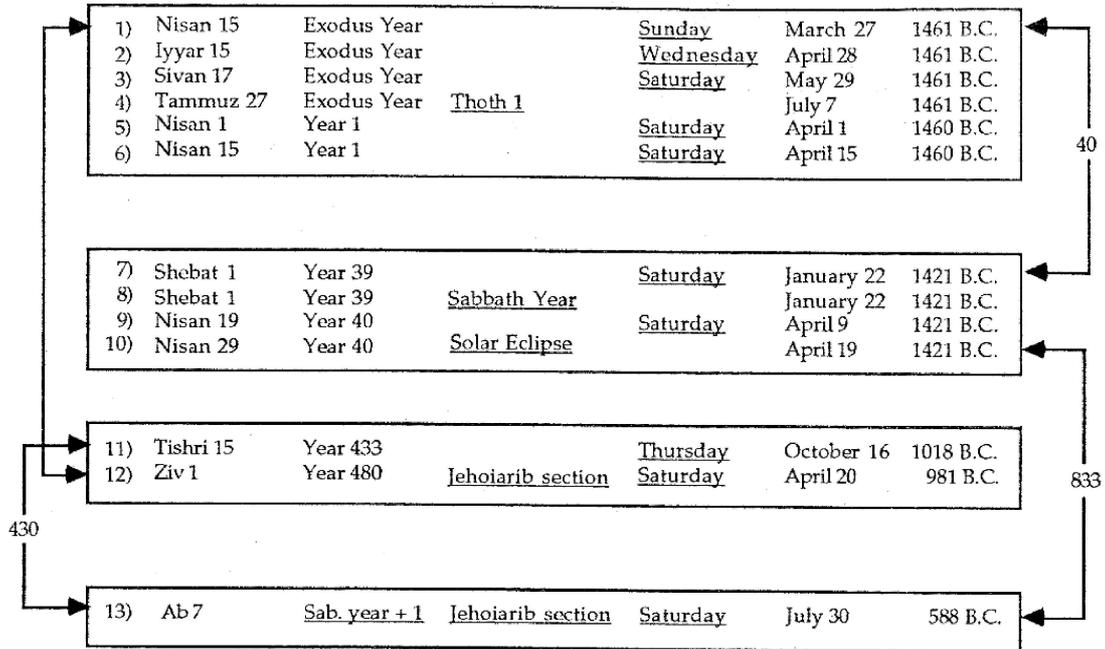
위의 본문에서 안식일 주기와 요일은 바빌로니아인들이 예루살렘을 파괴한 해가 기원전 588년임을 암시한다. 다른 '모니터 주기'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짜가 안식년의 주기가 될 것이라고 조명하고 있다. 예레미야에 있는 여러 문헌에서 이미 시드기야 10년이 안식년이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기 전 해였다.

C. 제사장 주기

정확한 파괴의 날짜에 대한 다음 증거는 제사장 주기에 대한 언급이다. 성전이 불타고 있을 때 제사장을 지낸 것은 여호야립 구역이었다. 다윗이 조직한 제사장들이 24개의 구역으로 돌아가면서 안식일에 새로운 구역을 만들었다 (역대기상 24:3-19). 그 주기가 완성되기까지는 168일(24x7)이 걸린다.

탈무드의 인용은 이스라엘의 주기적인 현상(안식일, 안식년, 제사장주기)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파괴는 일곱 번째 안식년의 말기, 성전에서 목사를 하던 제사장들의 여호야립 구역 동안에 '안식년이 끝나갈 때'에 나타났다. 컴퓨터 달력에 의하면, 위의 조건들은 기원전 588년 동안만 발생할 수 있었다.(그림II 참조).

도해 II: 천문학적으로 정해진 느부갓네살의 시기



D. 17번의 희년

기원전 588년의 예루살렘 파괴를 검증하는 또 다른 수단은 탈무드에서의 다음과 같은 언급이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때부터 그곳을 떠날 때까지 17번의 희년[주기]가 있었다."⁵⁸ 17번의 희년은 833년(49년x17년=833년)을 포함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약속된 땅에 들어온 시기는 출애굽(기원전 1461년+40년=기원전 1421년) 이후 40년이 지났을 때였다. 간단한 산수는 그 땅으로 들어간 해인 기원전 1421년과 그 곳으로부터 떠난 기원전 588년 사이에 정확히 833년(기원전 1421년+833년=기원전 588년)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E. 에스겔의 430년

에스겔의 예언에서 총 430년의 기간(에스겔 4:4-6)은 기원전 1018년 다윗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부터 기원전 588년 예루살렘의 함락까지의 기간인 것으로도 보인다. 이것이 예루살렘이 존재하게 될 세월이며, 규약의 방주가 방해받지 않은 채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된 것이다.

F. 솔로몬 4년

다윗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기 전까지 33년간 그곳을 통치했다(역대기하 29:26). 솔로몬은 4년 후이자 출애굽 480년 후에 그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열왕기상 6:1).

G. 출애굽기의 해

모세는 출애굽(출애굽기 19:1)으로부터 두달 뒤 시반월 15일에 시나이로 돌아왔고 이를 뒤인 토요일에는 계시가 낭독되었다. 그리고 그는 40일동안 산에 올라 이집트 사람들이 황소의 신 아피스를 숭배하던 새해 첫날, 토트월 1일에 이스라엘이 황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을 찾으러 내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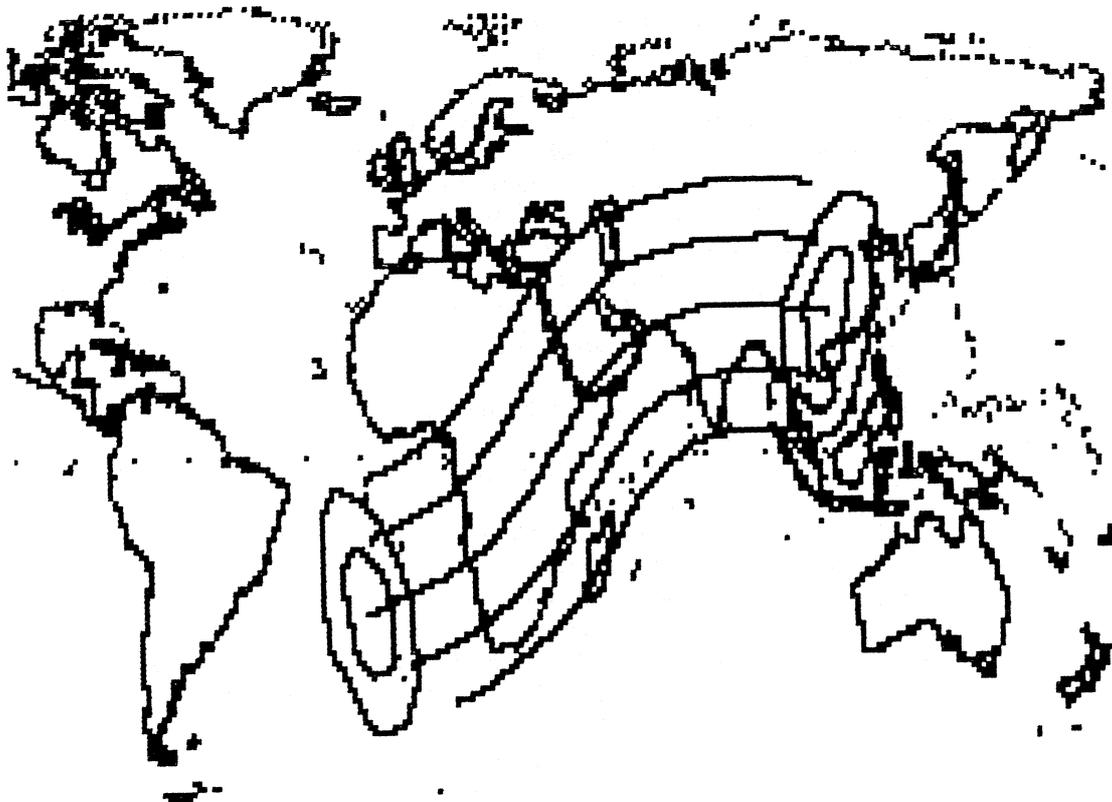
H. 두 번째 율법

모세는 39년 뒤인 스باط월 1일에 두 번째 법을 낭독했고, 그 날은 토요일이자 안식년이였다 (신명기 1:3).

I. 여호수아의 긴 하루

여호수아는 니산월 29일에 다섯 왕을 물리쳤다. 우박이 떨어지고 해와 달이 멈추었다. 기원전 1421년 4월 19일에 팔레스타인 상공에서 일식이 일어났다.

도해 Ⅲ: 기원전 1421년 4월 21일의 개기식과 30%, 60% 부분식 지도



요약

바빌론의 부흥과 유대와 이스라엘 마지막 해의 연대기는 여러 가지 이유로 크게 중요하다. 성서의 기록들은 이전 권 '히브리 왕들과 역사의 일치'에서 살펴보고 티엘의 작품인 '히브리 왕들의 연대기 *The Mysterious Numbers Of The Hebrew Kings*와 비교해 보았다. 주어진 사건들의 날짜가 절대적이지 않을수록 관련된 사건들은 더 모호해 질 것이다. 날짜가 절대적일수록 문헌 자체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 1년의 오차가 대수롭지 않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전체 연대기를 어긋나게 할 수 있다. 천문학 주기나 안식일 주기가 사용된다면 오차가 생길 일이 없다. 여러 가지 이유로 출애굽과 정복의 날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러한 사건들에는 각각 40년 간격의 날짜가 몇 개 있다. 일단 이 두 날짜가 확인되면, 그것들은 왕들과 연결되는 것들에 이어진다. 역사상 출애굽 날짜만큼 절대적인 날짜는 없다.

연대기 요약

1) 기원전 729년, 히스기야가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는 첫 해에 반란을 일으켜 성전을 열고 첫달에 수리했다. (역대기하 29:3). 제사장들은 제대로 갖춰져 있었고(29:25) 성전봉사가 두 번째 달에 시작되었다(30:2). 기원전 728년 시브 월의 둘째 날은 토요일이었고 제사장들 중 첫 번째(여호야립)가 직무를 시작했다. 그 반란은 어떤 면에서 티글라트 필레세르 3세의 병환과 궁극적인 죽음에 영향을 받았다.

2) 기원전 727년 아시리아의 살만에셀이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는 다마스쿠스에 대항했다. 히스기야, 호세아 그리고 이집트의 소는 동맹을 맺었다.

3) 기원전 725년, 살만에셀은 호세아에 대항하였고, 그로부터 3년 후이자 모세가 율법을 읽은지 700년 후인 기원전 723년에 사마리아를 물리쳤다.

4) 기원전 715년, 산헤립은 그의 아버지 사르곤이 코르사바드를 통치하는 동안 니느웨를 통치하고 있었다. 그의 14번째 해에 유대왕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에 잡혔다. 하나님의 기적이 당시에 자식이 없던 히스기야를 구했으나 15년 연장된 생애를 받게 되었다. 이집트의 왕 디르하가는 히스기야를 구하러 오려다가 아버지 사르곤에게 공물을 바치는 산헤립에게 패배하였다. 산헤립 3년(기원전 702년) 아시리아 왕은 히스기야로부터 두 번째보다 적은 공물을 처음 가져갔다고 자랑한다. 이 해는 하느님이 서임한 희년이었다(열왕기하 19:29).

5) 기원전 702년(히스기야 27년) 산헤립은 예루살렘을 두 번째로 공격했다. 그는 다시 히스기야를 쉽게 꺾었다(역대기하 32:25).

6) 기원전 624년, 요시야는 히스기야와 마찬가지로 그의 18번째 해에 개혁을 했다(역대기하 34:8). 안식년을 요구하는 율법책이 발견되어 읽혀졌다(34:15). 제사장들은 다시 정돈되었고(35:4) 기원전 624년 윤달 아다르월 24번째 날인 토요일, 첫 번째 순서인 여호야립이 시작했다.

7) 기원전 610년 요시야는 아시리아를 방어하기위해 바빌론과 싸우려가던 네코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 나라의 사람들은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았으나 석달 후 네코가 이를 아우인 여호야김으로 갈아치웠다. 요시야의 죽음과 신샤르이쉬쿰의 죽음은 동시에 일어났다.

8) 느부갓네살은 통치 8년에(기원전 601년) 여호야김으로부터 조공을 받았고 3년 후에 그의 아들인 여고냐가 그를 대신하였다(기원전 599년). 기원전 590년까지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포위공격했고, 이는 기원전 589년에 이집트와 싸우기 위해 해제되었다. 이 해는 시드기야 10년이자 안식년이었다(예레미야 34:8과 그 다음 참고). 예루살렘은 마침내 기원전 588년 압월 7번째 날에 파괴되었고 여호야립과 제사장들은 근무 중이었다. 이 연대기적 요건은 모두 들어맞는다. 5년 후인 기원전 583년에 느부갓네살은 이집트를 격파하고 남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았다. 기원전 577년 그는 6년 간 미쳐있었다. 이 기간 동안 그의 왕국은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 벨사살에 의해 기원전 574년까지, 그리고 그의 아내와 처남인 아스티아게스에 의해 그가 돌아온 기원전 571년까지 유지되었다. 기원전 569년까지 에스더는 아스티아게스와 약혼하고 568년에 결혼한다. 기원전 563년에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의 손자인 에월브로닥은 왕이 되고 여고냐는 석방되고 최초의 부림절이 발생한다. 이 부림은 아스티아게스 8년 아달월 13번째 날인 토요일에 일어났다.

2장 - 주석

- 1) E. W. 폴스티히, *히브리 왕들과 역사의 일치* (스펜서, 아이오와: 크로놀로지 북스, 1986)
- 2) 호세아는 소와 동맹을 맺었다(열왕기하 17:4). 그의 이집트식 이름은 Osorkon으로 그 해 죽었다. 6년 후 보코리스의 통치가 끝났고 사르곤 2년(기원전 720년)에 그의 전임자인 시베는 마침내 시리아에서 패했다.
 “나의 통치 둘째 해에, 넓은 [아무루의 땅]에 있는 하맛의 Illu-bi'di가... 그가 카르카르성읍으로 모여 서약 하고... [Simirra(아시리아의 아카드어 명칭)의 아르밧 성읍], 다마스쿠스와 사마리아[가 나에게 대항하였다]... 나는 자리를 잡았고 Sib'u는 그의 투르탄에게 그(한노)를 도우러 가라고 명령하니, 그가 나와 맞서 싸우러 나왔다. 나의 주인, 아수르(아시리아 최고 신)의 명을 받들어 그들을 무찔렀고, Sib'u는 양떼를 모두 빼앗긴 양치기 처럼 홀로 달아나고 죽었다. 하누니(한노)를 내 손으로 붙잡아 쇠사슬에 묶어 나의 도시 아슈르로 데리고 갔다. 내가 파괴하여 황폐하게 만들고 불로 태운 라피후 성읍과 9033명의 사람들, 그들의 많은 소유물을 노략했다.” 다니엘 데이비드 러켄빌,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고대기록*(이하 ARAB로 줄임) 2권(뉴욕, 그린우드 출판, 출판사, 1968) sec.5, p.3.
- 3)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고대기록* 1권, sec.816, p 293. 열왕기하 15:30과 비교해보라. 에포님 명부의 목록은 시리아-팔레스타인에서 티글라트-필레셀 3세에 의해 일어난 3년간의 군사활동을 보여준다. 이 군사작전은 시리아-Ephaimitish의 예루살렘 침략의 시기동안 발생했다. “웃시야의 손자 요담의 아들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이사야 7:1). 시리아의 르신과 이스라엘의 베가에 대항하여 아하스 왕이 티글라트-필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열왕기하 16:5-10 과 비교해보라. 아시리아의 명부가 성경구절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주목하라.
- | | | |
|--------------|--------------|----------------|
| 734 벨-단 | 칼라의 (총독) | 필리스티아에 대항하여 |
| 733 아슈르-다니나니 | Mezamu의 (총독) | 다마스쿠스의 땅에 대항하여 |
| 732 나부-벨-우슈르 | Si'me의 (총독) | 다마스쿠스의 땅에 대항하여 |
-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고대기록* 2권, sec.1198, p.436
- 열왕기하 15:29-30에 따르면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베가에 대해 음모를 꾸밀 때, 티글라트-필레셀이 납달리의 부족들을 강제추방 했을 때는 틀림없이 기원전 732년이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웃시야의 아들 요담 제 이십 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 4)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고대기록* 2권, sec. 1198, p.437.
- 5) *Ibid.*
 같은 책에서.
- 6) A.T. 올름스테드, *아시리아의 역사*(시카고: 시카고대학 출판부, 1951), p.205.
- 7) 하임 타드몰, “아슈르의 사르곤 2세의 군사작전: 연대기적 연구” *설형문자 연구 학술지* 12(1958) pp.22-40, 77-100.
- 8) A.k.그레이슨,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 연대기” (이하 ABC로 줄임) A.레오 오펜하임 등 편집, *설형문자 자료 문헌* 5권(로커스트 벨리, 뉴욕: J.J 어거스틴, 출판부, 1975)
- 9) 하임 타드몰, 앞서 언급한 책에서, pp 39. f.

2장 - 주석

- 10)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고대기록* 2권, sec. 4, p.2.

- 11)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고대기록* 2권, sec. 55, p.26.
 12)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고대기록* 2권, sec. 92, p.46.
 13)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고대기록* 2권, sec. 80, p.40.
 14)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고대기록* 2권, sec. 134, p.70-71.
 15)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고대기록* 2권, sec. 17, p.7.
 16) 아시리아의 에포님 명부와 아시리아의 왕 목록의 동기화는 다음 도표에 나와 있다.

아시리아 왕	지속기간(임기)	기원전 햇수	에포님(이름의 시조)
살만에셀 2세	12 년	1030	
아슈르 니라리 6세	6 년	1018	
아슈르 라비 2세	41 년	1012	
아슈르레쉬이시 2세	5 년	971	
티글랏 빌러셀 2세	32 년	966	
아슈르 단 2세	23 년	934	
아다드 니라리 2세	21 년	911	
투구르티 우르타 2세	7 년[6]	890	
아슈르나시르팔 2세	25 년	884	
살만에셀 3세	35 년	859	Tab-bel
샤마쉬 아다드 5세	13 년	824	Iahallu
아다드 니라리 3세	28 년	811	Shamash-kumua
살만에셀 6세	10 년	783	Urta-nasir
아슈르 단 3세	18 년	773	Mannu-ki-adad
6월 15일의 식 현상		763	부르 사갈레 Bur-Sagale
아슈르 니라리 5세	10 년	755	Ikishu
티글랏 빌러셀 3세	18 년	745	Nabu-bel-user
살만에셀 5세	5 년	727	Bel-harran-bel-user
사르곤 2세	17 년	722	Urta-ilia
산헤립	24 년	705	Nashir-bel
옛살합돈			

살만에셀 2세부터 살만에셀 5세까지의 각 아시리아 군주의 통치기간은 아시리아의 왕 목록에서 발췌했다[*구약성서와 관련한 고대 근동 문서(ANET)* pp. 566.을 보라]. 사르곤 2세와 산헤립의 통치기간은 아시리아 에포님 명부에서 왕의 통치기간 동안 발생하는 에포님들의 수로 알려져 있다. 사르곤의 통치기간의 길이는 바빌로니아 연대기-연대기1.ii.6.에서도 알 수 있다.

아시리아의 왕 목록은 투구르티 우르타 2세의 왕위에 7년의 기간을 부여하는 반면 네 개의 아시리아 에포님 명부에서는 6년간의 통치기간만을 부여한다. 이것은 투구르티 우르타 2세와 아슈르나시르팔 2세 사이 에포님의 수로 알려져 있다.

- 17) 옛사람들에 의해 보존된 아시리아의 에포님 명부는 수년간의 시간과 사건들을 기록한다. 각 해는 에포님이라 불리는 나라의 핵심 인사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에포님에는 아시리아 관료들의 이름과 그 해에 일어났던 주요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명부는 일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하고 있다. “763 구자나의 (총독) 부르(이쉬디)-사갈레가 아슈르 성읍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시마누 월에 태양의 일식현상이 일어났다.”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고대기록*, 2권, sec. 1198, p.435.

- 18)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고대기록* 2권, sec.770-778, pp.292-296.

2장 - 주석

- 19)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고대기록* 2권, sec. 779-785, pp. 296-298; sec. 817-34, pp.

313-321.

20)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고대기록* 2권, sec. 789-790, pp. 299-302.

21)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고대기록* 2권, sec. 791-798, pp. 302-305.

22)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고대기록* 2권, sec. 799-816, pp. 305-313.

23)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고대기록* 2권, sec. 690, pp. 265-266.

24) “실린더의 C 비문은 아슈르바니팔의 첫 번째 군사작전 동안 유다 왕 므낫세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내가 군사행동을 하는 사이에 티레의 왕 Ba’alu, laudi(유다)의 왕 Minse(므낫세), 에돔의 왕 Kaush-gabri, 모압의 왕 Musuri, 가자의 왕 sil-bel, 아슈켈론의 왕 Mitinti, 에크론의 왕 Ikausu, 구블라(비블로스)의 왕 Milki-ashapa, 아르밧의 왕 Iakinlu, Samsi-muruna의 왕 Abi-ba’al, Beth-Ammon의 왕 Ammi-nadbi, 아스돗의 왕 Ahu-milki, Edi’li의 왕 Ekishtura, Kitrusi의 왕 Pilagura, Silua의 왕 Kisu, Pappa의 왕 Ituandar, Sillu의 왕 Erisu, Kuri의 왕 Damasu, Tamesu의 왕 Admesu, Karti-hadasti의 왕 Damasu, 리디르의 왕 Unasagusu, Nure의 왕 Bususu, 바다 한 가운데의 왕들, 해변의 왕들 그리고 메마른 땅의 모든 22인의 왕들, 나의 신하들이 그들의 풍부한(말 그대로 양이 많은) 선물을 [내 앞으로] 가져와서 나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 [그 왕들], 그들의 힘을 모아...”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고대기록* 2권, sec. 876, pp. 340-341.

25) 나보니두스의 어머니 무덤의 것으로 보이는 두 기념 석주의 비문에는 그녀가 아슈르바니팔(42)과 그의 아들 아슈르에틸이라니(3)에 쓴 총 햇수가 나와있다.

"From the 20th year of Ashurbanipal, king of Assyria, when I was born, until the 42nd year of Ashurbanipal, the 3rd year of his son Ashur-etil-ili, the 21st year of Nabopolassar, the 43rd year of Nebuchadnezzar, the 2nd year of Awel-Merodach, the 4th year of Neriglissar, during (all) these 95 years in which I visited the temple of the great godhead of Sin, the king of all the gods in heaven and in the nether world, he looked with favor upon my pious good works and listened to my prayers, accepted my vows." James B. Pritchard, ed.,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Abbreviated ANET)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p.561.

26) 바빌로니아 연대기(연대기 3.10-12)는 나보폴라사르가 집권 10년차에 이집트와 아시리아 연합군과 싸웠다고 전한다.

10 "티슈리 월에 이집트의 군대와 아시리아의 군대가 Gablini까지 아카드 왕을 뒤쫓았으나

11 그들은 아카드의 왕을 추월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철수했다. 아달월에 아시리아의 군대와 아카드의 군대가

12 Anaphu의 (교외) Madanudid에서 서로 전투를 벌였다. 그리고 아시리아의 군대가"

그레이슨,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 연대기*, pp.91.

27) *구약성서와 관련한 고대 근동 문서(ANET)*, pp. 304-305.

28) 그레이슨,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 연대기*, pp.95-96.

29) *같은 책에서*, p.96.

30) 요세푸스는 나훔이 니스웨에 대하여 예언한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였다.

"그 때 나훔이라는 이름의 한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는 아시리아와 니스웨의 전복에 대해 이런 식으로 말했다. '니스웨는 움직이는 물웅덩이가 될 것이다. 그곳의 모든 백성들은 속을 태우고, 시달리며, 탈출로 떠날 것이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서서 금과 은을 빼앗아라. 그들이 돈을 아끼느니 차라리 목숨을 구할 것이니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끔찍한 말다툼이 그들 전체를 사로잡고, 비통함과, 구성원들을 풀어줄 것이며 그들의 얼굴은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다. 그리고 사자들의 소굴과 어린 사자들의 어미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니스웨에게 그들이 너희를 멸할 것이며, 사자는 더 이상 너희로부터 나가서, 세상에 율법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자는 니스웨에 관한 것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을 예언하였는데. 나는 이 말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여기서 1생략하여도 독자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115년 후에 니스웨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그래서 이 문제들을 언급한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 31)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고대기록* 2권, sec. 12, 18 pp. 6-8.
- 32) 히스기야 14년이 산헤립 3년이 아니라는 더 많은 증거는 바빌론의 므로닷-발라단의 생애와 관련된 사건들이다. 그는 산헤립의 첫해(기원전 704년)에 패한 후 습지대로 사라졌으나 산헤립은 그를 찾기 위해 광범위한 조사를 했다.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고대기록* 2권, sec. 256-260, pp. 128-131 참고. 그는 어떠한 역사적 기록에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성경은 히스기야 14년의 어느 때에 그를 잘 살아 있다고 묘사한다(열왕기하 20:12-13) 그러므로 산헤립의 3년은 히스기야 14년 보다 어느 정도 늦게 놓아야 한다. 티엘 박사의 유명한 연대기는 산헤립 3년과 히스기야 14년을 동일시 하고 있다.
- 33)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고대기록* 2권, sec. 239-240, pp. 118-121.
- 34) 그레이슨,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 연대기*, pp.95-96.
- 35) *같은 책에서*, p.96.
- 36) 일찍이 예레미야는 여호아하스 또는 살룸이 타지에서 죽을 것이란 길 예언한 바 있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잠허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예레미야 22:11-12
- 37) 그레이슨,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 연대기*, pp.99-100.
- 38) 이 때 예언자 예레미야가 여러 차례 연대기적인 진술을 한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 24:1에서 주어진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예레미야는 여호야김 4년(기원전 606년)은 느부갓네살의 원년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즉위 해를 1년으로 하는 히브리인의 계산이다. 바빌로니아인의 계산에 따르면 여호야김 4년(기원전 606년)은 바빌론 왕의 즉위년과 같을 것이다.
예레미야에 의해 주어진 또다른 연대기적 진술은 예레미야 25:3에 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열셋째 해부터 오늘까지 이십삼년 동안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렸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구절에서 예언자는 본질적으로 요시야 13년(기원전 629년)부터 여호야김 4년(기원전 606년)까지 23년(기원전 629년 + 23년 = 기원전 606년)이라고 말하고 있다. 연대기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39) 그레이슨,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 연대기*, pp.99-100.
- 40) 그레이슨,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 연대기*, pp.100-101.에서의 바빌로니아 연대기를 보아라. 각각의 해 동안(기원전 601, 600, 599년) 아카드의 왕은 군대를 이끌고 하투(시리아-팔레스타인)로 왔다.
- 41) 여호야김 11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침입한 것과 관련해 요세푸스가 한 말이 있다.
“얼마 뒤에 바빌론의 왕은 성 안으로 들어온 여호야김과 이 예언자의 예언이 두려워서 원정을 하였다. 성문을 닫지도 않고 그와 싸우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는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성안으로 들어가자 그는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꽃다운 나이에, 가장 위엄있게, 그가 성벽 앞에 매장하지 말고 던지라고 명령한 여호야김 왕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들 여호야킨을 그 나라와 그 도시의 왕으로 삼았다. 그는 또한 의연하게 주요한 사람들을 포로로서 바빌론으로 데려갔으며 그 수만 삼천 명이였다. 그 중에는 예언자 에스겔도 있었다. 그는 그 당시 어렸다. 이것이 여호야김의 36년 생애의 마지막이었으며 그는 열 한해를 다스렸다.

- 42)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의 특이한 종말과 그의 죽음에서 치욕을 예언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예레미야 22:18-19. 의심의 여지없이 여호야김은 성 밖에서 살해되었다. 성읍이 느부갓네살에게 포위되었을 때 유다의 통치자의 장례가 제대로 치러지는 것은 불가능했다.
- 43) 그레이슨,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 연대기*, pp102.
- 44)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을 사로잡아 포로로 잡은 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하고 있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의 인장받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 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나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나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여호와와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사람이 자식이 없었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22:24-30
- 45) *구약성서와 관련한 고대 근동 문서(ANET)*, pp. 309. W. F. 올브라이트 “포로기의 여호야김 왕” 성서 고고학자 5 (1942), pp48 f.
- 46) 참고 메릴 F 영거, *고고학과 구약성서* (그랜드 래피즈, 미시건: Zondervan 출판사, 1977), p293, 또한 W. F. 올브라이트, “엘리아김의 옥새와 유다의 유다 가장 최근의 전유물 역사” *성서문학저널* 51(1932), pp.77-106을 참고하라.
- 47) 이들은 도자기 파편, 오스트라카인데 이것들에는 예언자 예레미야의 마지막 해와 동시대의 고전 히브리 산문체의 서사문체로 페니키아 문자 필기체가 검은색 잉크로 메시지가 쓰여있다. 이 오스트라카들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기 직전의 정치와 군사 상황에 대한 첫 번째 문서이다. 라키슈의 편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H. 톨치너, O. 터프넬, C. H. 잉게, G. L. 하딩 외. 라키슈 vol. 1. *라키슈 편지* (런던,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 1938); vol.2, *도랑 성전*(런던,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 1940); vol.3, *철기 시대*(런던;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 1953), vol. 4, *청동기 시대* (런던;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 1958). 참고. 올가 터프넬. “고인이 된 J. L. Starkey가 감독을 맡은 텔 에드 두웨이르, 팔레스타인에서의 발굴, 1932-1938” *팔레스타인 분기별 탐험* 80 (1950), pp. 65-80
- 48) *미국 오리엔탈 연구회지* 80 (1940), pp. 11-13 그리고 82 (1941) p.24
- 49) *구약성서와 관련한 고대 근동 문서(ANET)*, p.322
- 50) *앞서 언급한 책에서*
- 51) W. F. 올브라이트. “구약성서와 고고학”을 참고하라. *구약성서 해설서*(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출판, 1948), p.164

2장 - 주석

- 52) 이 날은 유다가 고통을 받기 시작한 70년이라는 기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중요하다. 70년 후 하나님은 학개에게 박해의 기간이 끝났으니 다른 날을 표시하라고 하셨다(학개 2:10-15)
- 53) 예레미야의 예언은 열왕기하와 역대기하의 저자들이 예루살렘의 함락으로 생략된 이 사건의 정보를 준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하여" 예레미야 37:5-12
- 54) 성경은 안식년의 개념을 알려주는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다. 출애굽기 23:10-11, 레위기 25:1-7, 20:22, 신명기 15:1-18, 31:10-13.
- 55) 신명기 15:1-18과 예레미야 34:8-14를 비교할 때 안식일을 히브리 문자로 지칭하는 것은 분명하다. 예레미야가 안식년을 언급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대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중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이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려있거든 너희는 칠 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육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수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 34:8-14
- 56) 다음은 서기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제 2성전을 불태운 것에 대한 요세푸스의 설명이다.
"그러나 티투스는 외국 성전을 살리려는 자신의 노력이 병사들의 피해로 바뀌어 그들을 죽게 만든 것을 알고는 성문에 불을 지르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제 군인들은 이미 성문에 불을 지르고, 그 위에 있는 은으로부터 그 안에 있는 나무로 재빨리 불길이 옮겨 붙었고 갑자기 번져 회랑까지 장악했다. 유대인들이 이 모든 것을 보고 몸이 주저앉음과 동시에 영혼은 가라앉았다. 그들은 너무나 놀라서 방어를 서두르거나 불을 진압하려고 서두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그저 침묵하는 구경꾼으로서 서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불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고, 따라서 앞으로 더욱 현명해 질 것이다. 그러나 성전 자체에 이미 불이 붙은 것처럼 그들은 로마인들을 상대로 그들의 열정을 불태웠다. 이 화재는 그 날 동안 계속되었고 그 다음 날도 그랬다..." 유대인의 전쟁 VI.iv.1-2.
- 57) 이시도로스 엡스타인, 편집, *바빌로니아 탈무드*(런던, 소치노 출판, 1935) 미슈나 트랙트, 아라킨 11b, p.65. 여호야립 지파의 제사장들이 시편 94:23을 부르고 있었다는 것에 주목하라.
- 58) *바빌로니아 탈무드*, 미슈나 트랙트, 아라킨 12b, p 69